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취약층 대출부담 더나

당정, 5대 은행에 요청
“수수료 부담에 대한 못해
면제범위 최대한 넓혀달라”
금융권에 한시 면제 제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 방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금융권에 요청했다. 면제 대상 범위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금융 취약계층의 범위를 7등급보다는 더 넓혀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과브리핑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대출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토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취약자 주들이 고정금리의 정책금융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니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면제 범위 등 구체적인 요청과 협의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전할 예정이다. 다만 당정은 최하 신용등급인 7등급보다는 범위를 더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원은 “7등급까지 있는 신용등급 중에서 면제 대상을 어느 선까지로 할지는 자율적으로 정해 달라”면서도

“7등급은 숫자가 너무 적으니 소극적으로 범위를 잡지 말고 5등급까지라도 최대한 넓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확대해 달라”고 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더뎠고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확대 개편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세 종류의 정책금융대출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공급한다. 주택 가격 요건은 9억 원으로 올리고,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늘린다. 성 의원은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 현재 7조9000억 원 정도가 전환됐다”며 “세 종류를 한시적으로 1년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쉽게 전환토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해 낮아진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의무보험료인 책임보험료에 포함된 ‘광고비’ 등을 제외해 내 내리라는 것이다. 성 의원은 “책임보험료는 의무사항인데 여기에 광고비가 왜 들어가야 하나”라며 “이 부분을 고려해 내릴 수 있는 폭이 있다면 더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SK온·포드 합작美 최대배터리 공장 첫삽 SK온은 5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서 포드자동차와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재원(왼쪽) SK온 수석부회장은 “전기차의 미래를 선도할 블루오벌SK 켄터키 공장에서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과 앤디 베서 켄터키 주지사 기공식에서 H빔에 서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사진제공 SK온

30대 상무·40대 부사장... 한층 젊어진 삼성

삼성전자 187명 임원인사
직급·연차 무관 성과 중심
이정원 등 40대 부사장 17명
배범희 등 30대 상무 3명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한발 앞서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도록 젊은 리더와 기술 분야 인재 발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배범희(37)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생산기술연구소H/W기술그룹 상무와 이정원(45) DS(반도체) 부문 S.LSI사업부 Modem개발팀장 부사장이 각각 최연소 상무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을 두고 여성·외국인 발탁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11명이 승진 명단에 올랐다.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에서도 미래 성장을 책임질 젊은 리더들을 과감히 발탁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 임원 인사에서도 ‘3040’ 차세대 리더를 대거 발탁했다. 직급, 연차와 관계없이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젊은 인물을 과감히 중용해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6일 총 187명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직급별로는 부사장 59명, 상무 107명, 펠로우 2명, 마스터 19명이 승진했다. ▶관련기사 10면 삼성전자는 전일 ‘안정 속 혁신’ 기조를 바탕으로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임원 인사에서 젊은 인재를 다수 승진시키며 세대교체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첫인사로 경영 안정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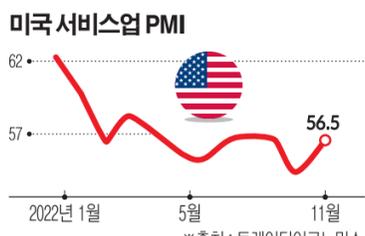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한 ‘뉴삼성’의 밑거름이 완성됐다는 평이다.

작년에 198명이 승진한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임원 승진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 승진 규모는 더 커졌다.

이번 인사에서 30대 상무는 3명, 40대 부사장은 17명이 배출됐다. 지난해(30대 상무 4명·40대 부사장 10명)보다 큰 규모다.

경제지표 호조에 ‘또 긴축’? 내년 美 금리 5% 넘을 수도

임금 오르고 PMI 예상 웃돌아
연준, 2연속 ‘빅스텝’ 났을 듯



자지수(PMI)는 56.5를 기록했다. 전월(54.4) 대비 둔화한 53.3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2일 발표된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방치의 두 배에 달하는 0.6%(전월 대비)의 인상 폭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13-14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종전 0.75%포인트(p)에서 0.5%p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WSJ는 13일 발표 예정인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내년 2월에도 연속으로 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시장에 또다시 ‘긴축’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안도 랠리를 펼쳤던 뉴욕증시 3대 지수는 5일(현지시간) 일제히 1% 넘게 빠졌다. 임금 상승 압력 때문에 연준이 내년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려를 키운 것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전망 기사였다. WSJ는 연준 위원들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의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를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그간 확실히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러 경제 지표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예상과 달리 호조를 보이자 연준이 현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11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비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

세계 ‘반도체 전쟁’ 증인데... 해 넘기는 ‘K칩스법’

野 제동에 상임위도 못 넘어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세특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 9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 의결까지 끝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는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으로 마련됐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과시키려던 풍력발전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법안소위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상임위에 계류됐다. ▶6면에 계속

이난희 기자 nancho0907@

'9% 확률' 뚫은 "대~한민국"... K삿별, 세계에 눈도장

해외에선 "韓 16강 어림 없다" 점쳤지만 손흥민·황희찬 등 맹활약 '도하의 기적' 조규성·이강인·백승호 등 신예발굴 성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붉은악마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 지난달 미국의 한 조사업체가 예상한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 가능성이. 모두가 고개를 내저었지만, 태극전사들은 91%의 투지를 더해 '도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캡틴' 손흥민은 마스크 속에 통증을 숨기며 그라운드를 누볐고, '황소' 황희찬은 몸이 어떻게 돼도 상관 없다는 각오로 싸웠다. 이들의 희생정신은 벤투호를 더 끈끈하게 연결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에 가로막혀 8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우린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조규성, 이강인, 백승호의 발굴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일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974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1-4로 패했다.

벤투호는 그간 우루과이, 포르투갈 등 강호들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문제는 체력이었다. 손흥민, 김진수, 조규성 등 주전 선수들은 조

별리그를 풀타임으로 뛰고, 16강전에 나섰다.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김진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이 안 움직였다. 더 뛰고 싶었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머리로는 생각을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브라질 선수들은 일찍이 경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했다.

그 차이는 초반부터 드러났다. 삼바 군단은 경기 시작 36분 안에 연속 네 골을 터뜨리며 한국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정신이 번쩍 든 태극전사들은 후반 들어 달라졌다.

'캡틴'의 투지 덕이었을까. 결국 골이 터졌다. 후반 31분 불경합 과정에서 페널티 아크에 흐른 공을 백승

호가 논스톱으로 걷어찼다. 브라질 골키퍼의 몸을 스친 공은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벤투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준 만회 골이었다.

비록 브라질엔 완패했지만,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목표로 했던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이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선 부상을 입고 마스크 투혼을 펼친 손흥민을 비롯해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조규성(전북)은 대표팀 주축 공격수로 거듭났다.

이번 월드컵에선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 교체출전 이후 가나, 포르투갈과 2, 3차전에 이어 브라질과 16강전까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특히 가나

전에선 아시아 선수 최초로 월드컵에서 헤더로만 2골을 넣는 등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표팀에 합류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강인(마요르카)도 입지를 굳혔다. 이강인은 월드컵 개막 직전 최종 명단에 극적으로 이름을 올렸고, 조별리그 우루과이, 가나전에 교체 출전, 포르투갈전에서는 처음 선발로 나섰다. 그는 가나전에서 교체 투입된 지 1분 만에 '택배 크로스'로 조규성의 멀티 골을 도왔다.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벤치에서 지켜봤던 백승호도 브라질전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트를 터뜨리며 뚜렷한 가능성을 입증, 더 나아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암시했다.

장유진 기자 yxxj

'캡틴' 손흥민 "4년 뒤 출전?... 필요로 한다면 이 한 몸 바칠 것"

벤투호 주역들 '말말말'

황희찬 "韓 자랑스러워" 조규성 "동료들 덕분"

이강인 "한걸음 더 발전" 벤투 "4년간 잘했다"

"태극전사들과 국민 여러분의 응원 덕에 잊지 못할 월드컵이 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사진)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긴 여정을 마치고 한 말이다. 강적 브라질을 만나 '첫 원정 8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캡틴'의 투혼 덕에 전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16강전을 끝낸 후 손흥민은 "선수들 모두 여기까지 오는데 자랑스럽게 싸워줬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선수들과 함께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4년 뒤 북중미 월드컵 출전 여부에 관해서는 "능력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가대표팀에서 저를 필요로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한 몸 바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포르투갈전에서 황금 같은 역전 골로 '도하의 기적'을 만든 황희찬은 북받쳐 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축구로 기쁨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국 축구의 미래로 꼽히는 공격수 조규성은 세계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월드컵을 치르면서) 큰 벽이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도 유럽에 나가서 뛰면 속도나 반응 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가나전에서 '아시아 최초의 헤더 멀티 골'을 넣으며 일약 글로벌 스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다 동료들 덕분"이라며 "똑같이 나는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스물셋을 갓 넘은 나이에 벤투호의 주축으로 거듭난 '게임 체인저' 이강인 역시 "날마다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월드컵을 뛰고픈 건 모든 선수의 꿈이다. 형들과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많은 걸 배웠고 느꼈다"며 "더 발전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축구와의 4년 동행에 마침표를 찍는 파울루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다. 벤투 감독은 "지난 4년간 열심히 준비했고, 조별리그를 굉장히 잘 치렀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한국 대표팀을 이끌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남겼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모두의 관심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안전을 위한 [참여] 우리를 We한 [행력]!

안전을 위한 [관심] 우리를 We한 [투사]!

안전을 위한 [수익준수] 우리를 We한 [생성]!



'집값 한파' 비껴간 지방 소도시... 비결은 '교통+일자리'

전국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집값 역주행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경기 이천시와 강원 강릉시, 원주시, 충북 충주시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일자리를 갖춘 인구 30만 명 안팎의 소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아파트값 내림세가 전국에서 지속 중이고, 부동산 매수심리도 잔뜩 얼어붙은 만큼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6일 KB부동산 통계 분석 결과, 올해(1월 3일~11월 28일 기준)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지역에는 경기 이천시(9.5%)와 강원 강릉시(8.6%), 원주시(4.9%), 충북 충주시(4.7%), 제천시(3.9%)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2.5% 떨어졌고, 서울 역시 상반기 가파르게 올랐지만, 하반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 최종 2.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매수세 실종으로 세종시(-10.5%)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11.8%) 등 일부 지역에선 두 자릿수 집값 하락률을 기록한 지역도 속출했다. 그만큼 집값 역주행 지역 등장은 이례적이다.

집값 역주행 지역의 공통분모는 교통과 일자리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과 강원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등 서울로의 접근성 개



전국 1년 새 2% 넘게 떨어졌지만 이천 9.5% 강릉 8.6% 충주 4.7% 인구 30만 소도시들 집값 '역주행'

선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줬다.

경기 이천시는 경강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이천에만 전철역 세 곳(신도예촌-이천-부발역)이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판교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고, 신분당선 환승을 통해 서울 강남까지 이동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본사가 들어서서 이천시 내 자체 수요도 꾸준하다.

실제로 '이천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전용 면적 84㎡형 호가는 이날 기준 최고 7억 5000만 원 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최근 실거래가는 8월 거래된

6억8000만 원으로, 3월 신고가 거래금액인 7억2700만 원보다 47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이천시 소재 D공인 관계자는 "이천 내 아파트 수요는 투자보다 실거주 비율이 높다"며 "이천보다 먼 여주시에서도 강남 출퇴근 수요가 제법 될 정도로 생각보다 교통이 괜찮다. 이천 내 인구 유입도 꾸준히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강원 원주시와 강릉시 역시 철도와 도로 교통 개선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자 외지인 유입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였다.

강릉시는 지난해 KB부동산 통계 기준

교통 개선, 수도권 접근성 좋아지고 대기업 투자 등 일자리 수요도 풍부 '뒤늦게 집값 키 맞추기한 것' 분석도

으로도 24.8% 올랐다. 2018년 KTX강릉역 개통과 서울-양양고속도로 준공으로 접근성이 좋아졌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에는 강릉과 속초시 일대 '세컨드하우스' 바람이 불면서 외지인 유입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지난해 강원 지역 아파트 매매량 중 외지인 거래 비중이 39.7%에 달한다는 집계도 나왔다.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역시 수도권과 맞닿은 지역으로 철도와 도로 교통망 개선,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는 데다 비규제지역 영향으로 수도권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더해지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다만, 해당 지역 상승세는 2020~2021년 전국적으로 오른 집값과 뒤늦게 '키 맞추기'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지역 모두 인구 30만 안팎의 소규모 도시로 아파트 시장 규모가 작아 부동산 시장 흐름 반영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이다. 저가 단지가 많아 시세차익을 노린 갭(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1억 원 이하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가격을 유지한 영향도 있다는 해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역주행 지역은 오랫동안 비규제지역이었거나 집값이 수도권보다 저렴한 곳이 대부분이라 가격 하락이 덜한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 핵심지역인 강남권 아파트 시세도 내림세를 기록 중이고, 재건축 단지도 여의찮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나쁘다. 국지적인 상승을 보인 곳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PF·분양시장 뇌관 될라" '둔촌주공' 흥행여부 촉각

〈올림픽파크 포레온〉

8일까지 일반청약 진행

특공 일부 미달... 본청약 '적신평' 미분양 땀 '2차 차환 위기' 가능성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악영향 우려 금융위 "둔촌주공 결과, 예의주시" 한은도 "부동산시장, 통화정책 변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가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분양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공급 물량에서 일부 미달이 발생해 분양에 적신평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2차 차환 위기'로 번질 우려가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분양 1·2순위 청약은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5일이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보다 입지나 조건이 나쁜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분양 성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단순히 서울의 일개 분양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의 분양 결과는 다른 재건축 분양 사업성의 척도가 되고, 부동산 시장 심리, 건설사 자금 상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투입돼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이 더 긴장하고 있다.

10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만기를 앞둔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 발행했다. KB증권은 5400억 원 규모의 현대대

우·롯데건설의 사채 발행을 주관했고, 한국투자증권은 1800억 원 규모의 HDC현대산업개발의 자금 조달을 맡았다. KB증권은 각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바탕으로 ABCP, ABSTB를 발행해 차환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조성한 채안펀드도 일부 물량을 매입했다. 민간 주택 사업에 정부가 조성한 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분양 결과에 따라 레고랜드 사태 이상의 '차환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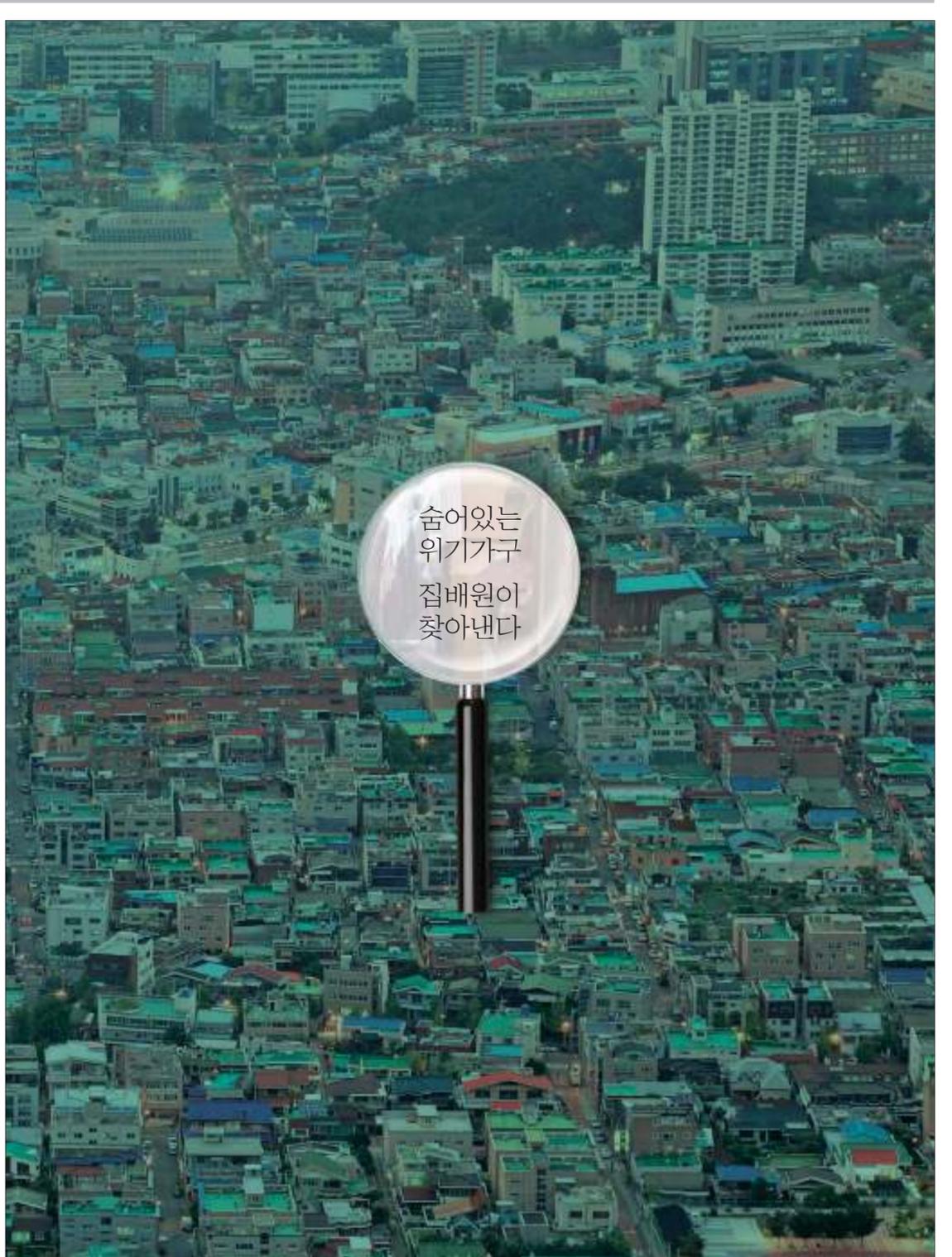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의 감내 능력 역시 자본력, 수익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저원가성 예금이 빠르게 이탈해 고금리 예금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금융안정위험은 또다시 급격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양 결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회사 자체자금으로 추진하던가 아니면 다시 ABCP 차환 발행에 나서면 그때 시장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둔촌주공발 부동산시장 변수를 통화정책 변수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연 3.5%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마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장기화할 경우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늦출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우려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상징성을 갖춘 단지가기 때문에 정부도 손 놓고 있던 않을 것"이라며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하락세인 것은 우려될 사항이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만 두고 보면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집배원들이 나섭니다. 생활고 등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에 지자체의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를 전달하면서 생활·환경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를 미리 찾아내는 우체국 복지등기 서비스- 위기가구의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체국은 복지등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넓혀가겠습니다.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찾는- 우체국 복지등기 서비스



〈삼성전자 회장〉

UAE 바라카 원전 찾은 이재용... “중동은 기회의 땅”

삼성, 新시장 개척 본격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중동 지역 법인장들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중인 이 회장은 6일(현지시간)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중동 지역 법인장들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대변혁을 추진 중인 중동은 기회의 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회장은 중동의 정상급 리더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특히 사업비 5000억 달러(약 660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네움시티’, 180억 달러(약 23조 원)의 UAE ‘마스다르 시티’ 등 초대형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아부다비에서 당시 무함마드 빈 자이드 UAE 왕세자(현 대통령)가 주최한 비공개 포럼에 초청받아 참석한 세계 각국의 유력 인사들과 교류했다. 5월 별세한 고(故) 셰이크 할리파 빈 자이드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가 마련된 용산구 주한 UAE 대사관을 찾아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사업장 방문 원전 건설현장 점검·직원 격려

현지 법인장 중장기 전략 논의 “어려운 상황, 도전적으로 나서자”

조문하며 각별한 인연과 친교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사업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를 승지원으로 초대해 미래 성장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3개월 후 사우디 출장 중에 빈 살만 왕세자를 다시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7일에도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를 면담하고 네움시티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여 일 만에 UAE 출장길에 올라 중동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에 나섰다.

재계는 이 회장이 이번 출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 중인 중동에서 접점을 늘리며 신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아부다비 알다프라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현지시간) UAE 바라카 원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지 MZ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위치한 ‘바라카(Barakah)’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았다. 바라카 원전은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이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국은 원전 인프라를 도입해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친환경,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UAE는 원전에 ‘바라카(신의 축복)’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중요한 의미

를 부여하고 있다.

이 회장이 찾은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은 회장 취임 이후 첫 해외 사업장이다. 이 회장이 중동 지역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2019년 추석 연휴 기간 사우디 리야드 지하철 공사 현장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 3·4호기 건설 현장을 돌아본 후 현지에서 근무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2012년 건설을 시작해 10

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초장기 프로젝트로, 임직원 상당수가 오랫동안 현지에 체류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겪는 바랍과 각오 등을 경청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이날 아부다비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을 방문해 제품 판매 상황과 고객들의 반응을 직접 살폈다.

장효진 기자 js62@

脫중국 가속화에 떠오른 인도... 세계 경제성장 新엔진으로

코로나 봉쇄 풀고 경제활동 재개 올해 니프티50지수 7% 올라 애플, 아이패드 생산 이전 논의 기업 유치 ‘차이나+1’도 한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과 인도, 두 국가의 운명을 갈랐다. 중국이 봉쇄에 집착한 지난 3년간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짐을 썼다. 일찌감치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한 인도에는 돈이 몰려들고 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달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인도 증시는 올해 전 세계 기준급인인상 여파로 주요국 증시가 죽을 췌는 와중에 나 홀로 올랐다. MSCI신중국지수가 16% 빠진 반면, 인도 대표 지수인 니프티(Nifty) 50지수는 7% 상승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이 투자처로서 인도의 매력을 끌어올렸다. 인도 역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초반 확진

자가 급증하자 봉쇄에 들어갔다. 인구 13억 명이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다. 세계 최대 규모 이동제한 조치였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 인도는 올해 초 모든 방역 지침을 풀고 빠르게 경제 활동 복구에 나섰다.

기업들은 인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강력한 방역 지침이 계속되면서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전망마저 불투명해지자 기업들은 대체 지역 물색에 나섰다. 세계 2위 인구 규모, 견고한 경제성장, 친기업적 정부 등 인도의 매력은 차고 넘쳤다. 인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7%, 내년은 6.5%로 각각 전망되고 있다. 세계 거시경제가 위축된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주요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이다. 인도는 2030년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진저리가 난 기업들은 ‘탈(脫)중국’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애플은 올해 신제품인 아이폰14 생산의 5%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점차 생산을 확대해 2025년에는 인도 비중을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다. 미국 CNBC방송은 이날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애플이 아이패드 생산 이전을 놓고도 인도 정부와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영국 텔람파트너스의 자파 아흐마들과 대표는 “탈중국 현상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제품 조립, 섬유, 엔지니어링, 화학, 제약 부문을 포함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돈이 몰리면서 인도는 건설 ‘붐’에 휩싸였다. 공장, 도로 등 고정자산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까지 늘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도 정부도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China+1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리스크에 대응해 다른 국가로 투자를 늘리는 전략을 일컫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계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친기업 정책을 쏟아냈다. 모건스탠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2021년생 기대수명 83.6세 여성, 남성보다 6년 더 길어

지나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의 평균 수명은 83.6세로 집계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6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6일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0세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추정할 수치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매년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다.

작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1년 전(83.5년)보다 0.1년 늘었고, 10년 전(80.6년)과 비교하면 3.0년 올라갔다.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이 없어진다면 작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3.5년 더 늘어나고, 심장질환과 폐렴이 사라지면 각각 1.3년, 0.9년씩 기대수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대수명의 증가 폭(0.1년)은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건강 요인이 적용된 영향이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건강 위협요인이 2020년보다는 2021년도에 작용한 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 기대수명이나 기대여명의 증가 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4.6%, 여자가 5.4%로, 1년 전보다 각각 1.2%포인트(p), 1.3%p씩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은 각각 80.5년, 86.5년으로, 작년 태어난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보다 6.0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남녀의 기대수명은 모두 1년 전보다 0.1년 증가했고, 남녀 격차는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주식은 제외”

이혼소송 5년5개월 만에 1심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이 5년 5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주식 가운데 약 649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

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의견 차이를 좁이지 못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국 이혼 소송을 했다. 이혼에 반

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648만7736주를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최 회장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중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라는 이유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34년 지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

다. 노 관장은 올해 2월 법원에 “최 회장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1심 선고 전까지 최 회장의 SK(주)주식 27%(350만 주)에 대해 처분을 금지했다. 법원은 SK(주)주식을 최 회장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38.9%>

지지율 업은尹 “타협 없다”... “화물연대 이미 내부균열”

국민 58% “파업 자제” 여론 더해 국정수행 긍정평가 2주 연속 상승 전남 업무복귀 등 내부이탈 늘며 운송거부 조기 종료 임박 가능성 밤 시간대 물동량 정상수준 복구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조짐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불법행위 엄벌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시작된 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해 40%에 육박하고 있어 단호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1003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이 넘었다. ‘문제없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했다. 11월 28일~12월 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2507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주 연속 올라 38.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해 58.9%로 50%대가 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우호적인 여론에다 화물연대 내부 이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머지않아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대응 로드맵은 명확하다. 타협은 없고, 업무에 복귀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지역 개별지부에서 파업을 포기하고 업무에 복귀하려는 등 이미 내부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정부 입장을 충분히 숙지했고, 곧 수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

황이 장기화할 때를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정부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덧붙혔다.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광양항에서 농성하던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업무 복귀에 나섰다. 이 같은 개별 지부 집단운송거부 이탈은 정부 압박에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점차 늘면서 항만 물류가 정상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5일 17시~6일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만 1982TEU로 평상시보다 14% 많았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

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3만 3411TEU로 평상시보다 31% 많았다. 규모 2위인 인천항 반출입량은 6184TEU로 평상시보다 21% 늘었다.

밤 시간대 물동량은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총파업 이후 쪽 멈춰 서 있던 광양항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커지자 광양항에서 집회를 벌여왔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항을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의 80%가량이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전남 광양항에 관용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한 데 이어 이날은 12대를 추가해 컨테이너를 반출입한다.

전문가들은 “마무리 작업이 ‘연착륙’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울 명지대 교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어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나치게 장기화해 불편이 커지거나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현대중·대우조선 임단협 잠정합의 민노총 총파업 투쟁 동력 약해지나

공동파업 일단 유보

대형사업장 잇단 파업 불참에 동투 로드맵 틀어지며 힘잃어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총파업을 발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파업에 불참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 노사는 5일부터 진행한 제36차 교섭에서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수수당 2만 원 인상 △격려금 350만 원 △현대오일뱅크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이다. △배우자 포함 치과치료비 연 50만 원 △주택구매 용자 상환기간 연장 △퇴직자 기간제 채용 확대 등도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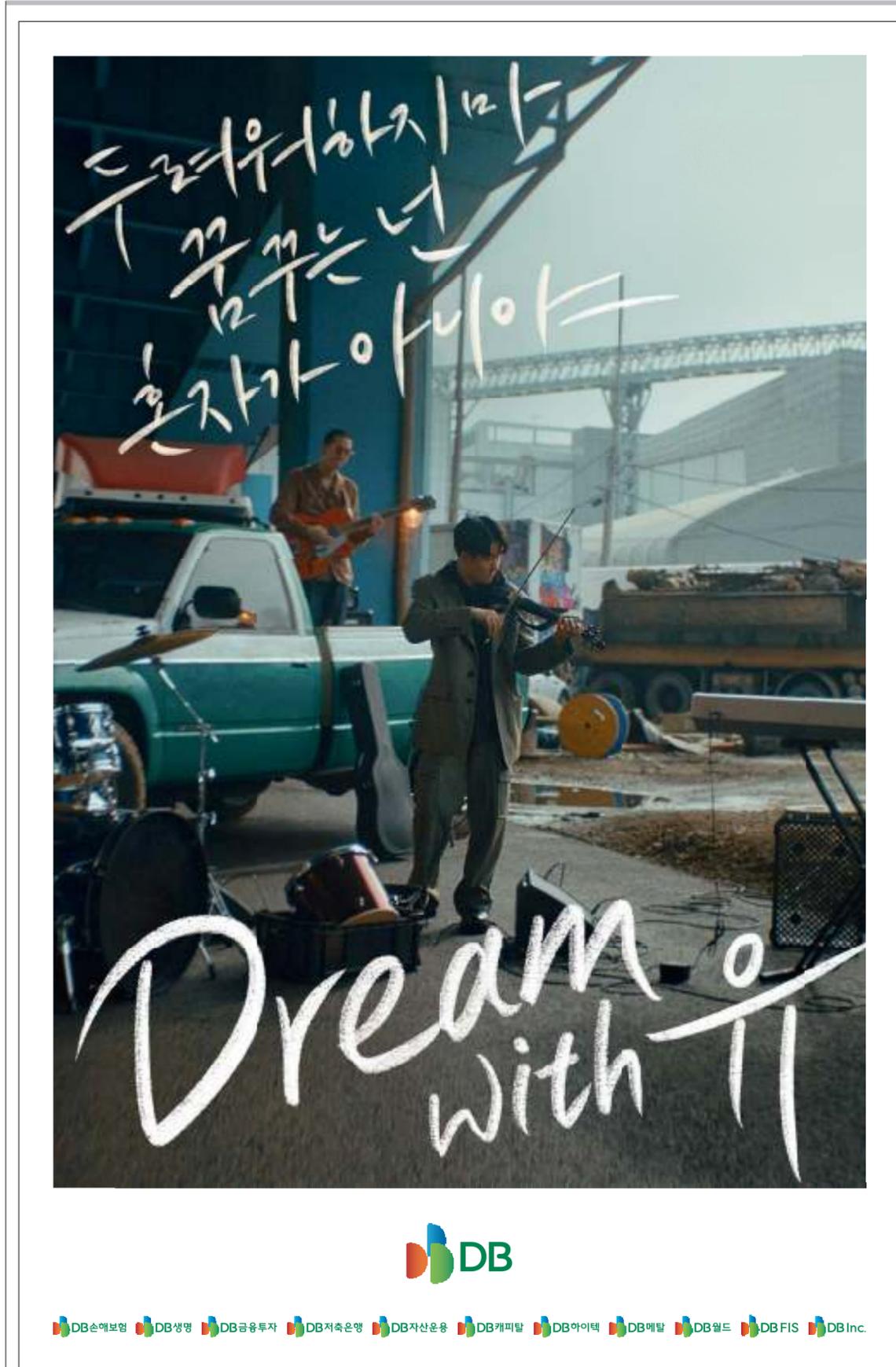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조와 함께 벌일 예정이었던 4시간 공동파업을 유보했다. 이들은 공동 파업을 포함해 7~9일 3사 노조 순환 파업, 같은 달 13일 공동 전면파업 등을 벌일 예정이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 전체 조합

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이번 교섭만큼은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 역시 이날 올해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8만 5000원 인상(정기승급분 포함), 격려금 200만 원 지급, 하기 휴가비 30만 원 인상 등을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8일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등 대형사업장이 노사협상 타결로 민노총 총파업에 불참하면서 민노총의 세 과시가 힘을 잃게 됐다. 대형사업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에 불참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일부 간부만 총파업에 참석했다. 애초 민노총은 110만 조합원이 투쟁하자고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지만,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약 2만 명(경찰 신고 기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참으로 노동계는 동투(겨울철 투쟁) 로드맵이 틀어지면서 상급단계인 민노총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파업 투쟁에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통과도 불투명... “내년 2월 임시회서 처리?”

해 넘기는 ‘K칩스법’

▶1면서 계속

정치권에 따르면 12월 중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과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 초쯤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반대가 있어 산자위 일정이 쉽

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 국민의힘 20% vs 민주당 10%

“여야 쟁점 법안에 밀려 후순위”

게 잡힐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상임위 일정을 잡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K칩스법에 포함될 또 다른 법안인 조특법의 경우 여야 대립으로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6일 국회 기재위 측은 여야 간사 협의가 되지 않아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위가 열린다 해도 법안을 둘러싼 여야, 기획재정부와의 견해차가 크다는 게 문제다. 여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반도체 설

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특법은 아직 한 번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기재위에

서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해도 본회의까지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한 핵심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쟁점 법안에서 밀려 후순위에 있고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아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년 2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대통령실 이전 예산 여야 원내대표들 ‘막판 탐색전’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에서 이동하고 있다.

‘2+2 협상’ 실패로 직접 만나 SMR·신재생 예산 합의 근접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6일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 막판 조정엔 나섰다.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 사업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지만,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 청취를 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2+2(협의체)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쟁점이 많이 남았다”면서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견해도 뚜렷하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권이 하고자 하는 새 정

부 출범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삭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삭감,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예산 부수 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법안 25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尹 새해 연설 ‘수출·경제’ 키워드 꺼낼까

향후 1년 국정기조 가늠자 취임식 땀 자유 35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새해 국정연설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국정 운영방향 가늠할 ‘키워드’로 어떤 주제가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해 연설은 3·1절, 광복절 경축사만큼 대통령실에서 역점을 두는 이벤트일 뿐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이 많다. 신년 연설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향후 1년의 국정기조, 핵심 의제 및 전략 등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 새해 연설은 통상 3개월 전부터 준비한다. 과거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선 대통령실 각 수석실에서 향후 1년의 국정기조와 핵심전략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논의를 하면 이를 기반으로 총리실에서도 초안을 작성한다”며 “양쪽에서 취합한 내용을 토대로 연설 비서관실이 초안을 작성하고 추후 비서

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이 최종적으로 논의해 만들어진 연설문 초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

연설문 초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마음이며, 연설 직전까지 어떤 키워드를 쓸지 역시 대통령만 알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새해 연설 내용 구성을 위해 공식 라인(수석, 총리) 외에도 학계, 언론계 등 권위자들에게 자문한다”며 “결국 대통령만이 모은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구조다. 최종 연설 내용이 막판에 연설기록비서관(현 국정메시지비서관)실에 넘어와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그동안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취임식부터 줄곧 ‘자유’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언급했다. 지난 5월 10일 취임식에선 자유를 무려 35번 외쳤다. 청와대에서 국정기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기자와 만

나 “연말 비공개 석상에서 수시로 나오는 용어, 정책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신년 국정연설엔 그동안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단어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그대로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요새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국가가 먹고사는 것은 수출이다, 전 고위공직자들이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또 화물연대 문제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원칙에 관해 말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최악이 아니겠다. 무엇보다도 경제 관련 내용이 핵심이 될 것 같다”며 “화물연대 파업 정리, 전당대회라는 큰 과제와 이벤트도 있어 이 역시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하유미 기자 jscs508@

野 “자산가치 적은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최소화”

김성환 “강북 1가구 2주택자 강남 1주택자보다 부담 과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역을 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제도 설계가 복잡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1가

구 1주택의 종부세 기준은 현재 11억 원”이라며 “서울 강북구에 소형 주택을 2채 갖고 있는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측은 9+3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당내에서 긴급하게 결정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 검토도 하고 있다. 기재위에서도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측은 9+3안은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을 더해 12억 원까지 공제하는 안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3+3(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

사)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 협의 과정을 거쳐야 쟁점 사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내용까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증액심사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화폐 예산을 포기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증액 관련한 부분은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아 상호 간 의견교환을 했다”며 “지역화폐는 코로나19 과정에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인데 ‘이재명표 정책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정치쟁점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된 것”이라며 “막판에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포기한 적 없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북한군 “한미훈련 경고성 포사격”

한미, 이틀째 MLRS 사격 훈련

북한군은 6일 남측이 방사포·곡사포를 발사하는 상황이 포착됐으며 대응 사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어제 5일에 이어 오늘 6일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상황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참모부는 인민군전선 포병 부대들을 비롯한 각급 부대들에 전투비상 대기 경보를 하달하고 적정 감시를 강화할데 대한 긴급지시를 하달하였다”며 “지적된 전선포병부대들에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실탄 포사격을 단행할데 대한 명

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참모부는 또 “적측은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철원 일대에서 전날 이어 이날도 다연장 로켓(MLRS) 등 사격 훈련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한미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으며 130여 발의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한 바가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Outclass GRANDEUR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혜택: 블루점검 케어서비스/긴급출동/블루포인트/견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클릭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엔진 2WD (18"): 복합 11.7km/ℓ(도심:10.0km/ℓ, 고속도로:14.5km/ℓ) | CO2 배출량 143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62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엔진 2WD (19"): 복합 11.4km/ℓ(도심:9.8km/ℓ, 고속도로:14.2km/ℓ) | CO2 배출량 14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63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엔진 2WD (20"): 복합 11.2km/ℓ(도심:9.6km/ℓ, 고속도로:13.6km/ℓ) | CO2 배출량 150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65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2WD (18"): 복합 10.4km/ℓ(도심:8.7km/ℓ, 고속도로:13.4km/ℓ) | CO2 배출량 163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69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2WD (19"): 복합 10.1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3.0km/ℓ) | CO2 배출량 168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1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2WD (20"): 복합 9.7km/ℓ(도심:8.3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2 배출량 176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3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AWD (18"): 복합 9.3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7km/ℓ) | CO2 배출량 179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6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AWD (19"): 복합 9.2km/ℓ(도심:7.9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2 배출량 186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69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AWD (20"): 복합 9.0km/ℓ(도심:7.7km/ℓ, 고속도로:11.2km/ℓ) | CO2 배출량 190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80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LPG 3.5 엔진 2WD (18"): 복합 7.8km/ℓ(도심:6.7km/ℓ, 고속도로:9.6km/ℓ) | CO2 배출량 110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1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LPG 3.5 엔진 2WD (19"): 복합 7.4km/ℓ(도심:6.3km/ℓ, 고속도로:9.2km/ℓ) | CO2 배출량 180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3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LPG 3.5 엔진 2WD (20"): 복합 7.3km/ℓ(도심:6.2km/ℓ, 고속도로:9.1km/ℓ) | CO2 배출량 183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5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18"): 복합 18.0km/ℓ(도심:18.0km/ℓ, 고속도로:17.9km/ℓ) | CO2 배출량 88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700kg | 자동 6단 (1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19"): 복합 16.7km/ℓ(도심:16.6km/ℓ, 고속도로:16.8km/ℓ) | CO2 배출량 96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715kg | 자동 6단 (1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20"): 복합 15.7km/ℓ(도심:15.4km/ℓ, 고속도로:15.9km/ℓ) | CO2 배출량 103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735kg | 자동 6단 (2등급) ※ 동일 사양(구동축,인송,라이오) 모델에 "플트인양 장착"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차와 플트인양 장착 차종의 연비 통합 인증 사양입니다. ※ 뒤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자,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위기준에 따라 실수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에라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비싼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 맞은 남대문시장 크리스마스가 20일도 남지 않은 6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가에 크리스마스 용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편 산업부 '원전전략관' 신설

**정부, 20개 부처 개정안 의결
기재부 장기전략국→미래전략국
연내 남은 31개 부처 효율화 계획**

정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1개 부처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선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가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했다. 이후 추진단

은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 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직제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 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기재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과 재정기획심의관을 각각 재정정책국과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바뀌고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을 지역기반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상계 신

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효율화를 위해 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을 총괄하는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 축산, 유통·소비를 총괄하는 식량정책실로 바꾸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상계 신설한다.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와 에너지자원·원전 수출기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를 각각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산업공급망정책과로 개편한다. 한시조직으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하며, 원전전략기획관을 새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특구 혁신기획단으로 개편한다. 정책, 글로벌성장, 지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정책실에 대해선 소관 업무에 기술혁신을 추가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반려동물 아무나 못판다

등록제→허가제 전환

**무허가 생산·판매 2000만원 벌금
묶어 키울 땐 '2m' 짧은 목줄 금지**

정부가 동물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가 담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모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무허가로 불법적인 반려동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은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실습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의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하고, 적절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동물 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학대받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향후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물림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美·EU, 앱마켓 독식한 구글·애플 정조준"

공정위 "각국 경쟁 촉진법 내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하는 사전적 규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두 사업자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따른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으로 야기할 수 있는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해외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적·행태적 규율 동향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는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

면서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으로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EU를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 중심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핵심 골자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도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구글과 애플이 이들 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는 해외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도 담겼다. 사례 대부분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

이창양 "우주 탄소복합재 기술 자립에 1850억 투입"

**정부, 3000억 대출 '이차보전'
2030년 100조원대 시장 전망**

정부가 우주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복합재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고성능 기술을 자립화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대출 이차보전을 진행한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소형 발사체 등 3대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6일 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또는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 등을 첨가해 만든 중간재료,

철보다 10배 이상의 강도를 지녔으며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비싸지만, 낚시대와 건축자재, 항공기 등 적용 분야가 다양해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린다. 특히 최근 무게 절감이 중요한 우주항공, 방산 산업에 탄소복합재가 적합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100조 원 시장의 기회를 잡고 우주시대 개막과 2030년 UAM 대중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복합재에 전략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고성능 탄소복합재 분야 기술 자립화 실현과 반값 탄소섬유 개발에 1850억 원을 투입한다. 고강도 탄소섬유는 세계 3번째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만큼 2025년까지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초고강도와 초고탄성 탄소섬

유는 2028년까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 탄소복합재 기업이 국제 선도 기업과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제품 신뢰성 향상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생산시설 확충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수 규모를 키우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 분야 3대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4인승급 UAM, 소형 발사체,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세 기획 후 단계적인 진행에 나선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on@



신한올 1호기 오늘부터 상업운전... 전력수급 힘 보탠다

국내 27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올 1호기가 7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착공에 들어간 지 12년 만이다.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커지는 가운데 신한올 1호기 등 원전 가동이 추가된다면 전력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올 1호기가 7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올 1호기는 지난해 7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한 뒤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고온기능시험 등을 거쳐 원자로를 가동했다.

신한올 1호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완공 후 조건부 운영 허가까지 1년이 걸렸고,

기자재 품질 문제 등으로 상업운전이 미뤄졌다. 이번에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면 2010년 4월 건설 착공 후 12년 만이다.

신한올 1호기에 이어 가동을 멈췄던 한빛 4호기도 재가동이 임박했다. 한빛 4호기는 보수공사를 마무리했고, 원안위는 8일 회의에서 한빛 4호기 재가동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설을 앞당기기로 한 신한올 3, 4호기까지 있어 새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이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상업운전과 관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한올 1호기를 운영해 겨울철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on@

대립하던 美-EU, 中 견제 한뜻... '기후관세' 카드 만지작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전에도 기후 대응 문제에는 한목소리

중국산 알루미늄·철강 수입 때 추가관세 검토... "탄소배출 감축" 韓·日도 '관세 표적' 우려 커져



미국과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들이 5일(현지시간)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러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칼리자파르(미국)/AP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놓고 맞서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견제에 한뜻을 보인다. 특히 이들이 기후 대응과 관련한 대중국 추가 관세 카드를 검토함에 따라 기후변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원자재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그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IRA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기후 대응 문제에 관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브뤼헤 유럽대학 연설에서 "IRA가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유럽과 미국은 녹색 기술 전환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대중 관세 부과 역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지나치게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무역마찰이 일어날 때 쓰이는 수단이지만, 미국과 EU는 기후변화 어젠다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관세 부과를 취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이를 무역장벽 명분으로 삼기도 쉬워진 상황이다. 탄소 배출 감축이 명분인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다. 블룸버그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협력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였지만, 초창기엔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일본이나 다른 국가도 새로운 관세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아이디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아직 EU에 공식 제안되지 않았을뿐더러 계획도 초기 수준에 머물러 실현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관세 적용 기준을 정하는 등 EU와의 합의는 빨라도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EU는 이날 3차 무역기술위

원회(TTC)를 소집하고 중국의 의료기기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응도 논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우린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이 미국과 EU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기 시장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며 "중국 정부의 늘어난 자금 활용과 관련해 공동된 우려를 파악하고 교류를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과 EU는 글로벌 안보뿐 아니라 동맹국의 합법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려는 이들의 경제적 강압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우린 공급망 다각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이슈였던 IRA에 대해서 양측은 이번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법안 내 해외 기업 차별 문제와 관련해 '초기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지는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유조선, 튀르키예 해역서 정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난사'

EU·G7 유가상한제 시행 첫날 새 보험증빙 요구에 19척 발 묶여 리, 항의 목적 70발 무차별 폭격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첫날 곳곳에서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튀르키예(터키) 당국은 자국 해역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에 대해 유가 상한제에 부합하는 새 보험 증빙을 요구했다. 이는 EU와 G7이 배럴당 60달러(약 8만 원)를 넘는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유조선에 대상으로 서방 보험사의 해상보험 가입을 막은 탓이다. 튀르키예 입장에서 기름 유출과 선박 충돌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금 처리를 위해 선박들에 갇힌 보험 증빙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튀르키예 해역에서 유조선들이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약 19척의 유조선이 이 해역을 지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가장 먼저 대기 중이던 선박은 6일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진다. 세계 해운의 약 90%를 책임지는 13개 보험사가 가입한 P&I 클럽은 "튀르키예 정부의 요구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불평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은 유가 상한제가 글로벌 석유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FT는 짚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날 긴축 우려와 강달러 지속에 3% 넘게 하락했지만, 이후 유가 상한제 우려가 다시 커지며 6일 아시아시장에서는 1% 가까이 반등했다. 맨 처음 유가 상한제를 제안했던 미국도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튀르키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선박의 이동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 시행 첫날인 이날 우크라이나에 70발 넘는 미사일을 퍼부었다. 새로운 제재가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는 고의로 에너지 시장을 불안하게 해 세계 모든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이런 이들에 강력 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6일 지난달 30일 사망한 고(故)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추도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국가장 성격의 추도대회에 맞춰 14억 중국인이 3분간 묵념했으며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모든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하루 동안 공공오락 활동이 금지되면서 리프트가 문을 닫고 텐센트 등 게임업체들도 서비스를 멈췄다. 베이징/AP연합뉴스

日, 중동원유 의존도 95%... '오일쇼크' 이전 넘었다

원유 수입원 다각화 나섰지만 대안이던 러시아 전쟁 일켜 세계 탈탄소 바람도 주요 원인

일본의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전 수준을 넘어섰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일본은 원유 수입원 다변화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올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탈탄소 움직임에 다시 중동산 원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6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10월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4.7%에 달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90% 전후였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이후 8개월 연속 95%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일쇼크 이전인 1967년 평균 수준(91.2%)마저 웃돌고 있다.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수입원 다각화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렸다. 그 결과 1987년 일본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67.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다시 중동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 10월 일본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제로(0)'였다.



기본적으로 중동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일본에 대안이 사라진 것이다. 영국 BP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원유 수입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8.9%, 유럽 주요국은 16.5%에 그친다. 그나마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인도도 각각 49%, 61%로 일본보다는 낮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등이 합의해 5일 시행에 들어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사할린-1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포함하는 것도 동의했다. 사할린-1은 러시아의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일본이 유일하게 중동 이외 지역에서 참여하는 원유 생산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도 "현재 일본이 사할린-1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연가스 개발이 핵심인 사할린-2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내년 9월까지 상한제 적용이 유예된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탄소 감축 압박이 커지면서 중동 이외 지역의 원유 개발 투자는 축소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세계 석유·가스 개발 투자가 56조 엔(약 537조2304억 원)에 달해 2019년에 비해 16%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투자는 10%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도 원유 의존도 자체는 줄여가고 있다. 지난해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1967년의 61.7%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 정영민 기자 oin@

우크라이나, 리 공군기지 드론 공격

영토 겨냥한 첫 직접 타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공군기지 두 곳을 무장 드론으로 공격했다. 2월 전쟁이 발생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라잔과 영겔스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공군기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각각 300~450마일(약 483~725km)가량 떨어져 있다. 라잔 공군기지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거리는 160km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구조선제 제트엔진을 장착한 해당 드론을 격추시켰지만, 잔해물이 폭발하면서 기지 내 비행기 두 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고, 정부는 장거리 공격용 드론 보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영 방위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은 최근 새로운 장거리 드론 개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서방사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장거리 공격용 무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0대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지원하면서 사거리가 290km 이상인 에이태크스(ATACMS) 발사를 할 수 없도록 비밀리에 시스템을 변경했다. 서방이 장거리 공격용 무기 지원을 꺼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쟁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김서영 기자 0jung2@

‘성과주의’ 방점... ‘뉴삼성’ 책임질 기술전문가 전면

임원인사 살펴보니...

삼성전자가 단행한 부사장 이하 정기임원 인사에서 삼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전문가가 대거 승진했다. 핵심 기술력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인재를 등용시키면서 기업 성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신기술 개발 성과를 낸 연구개발(R&D) 부문의 전문가가 다수 임원으로 등용됐다.

먼저 문성훈 DX부문 MX사업부 전략제품개발1그룹장은 갤럭시S 시리즈, 폴더블폰 등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하드웨어 개발을 주도하며 신규 기술발굴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정원 DS부문 S.LSI사업부 모델개발팀장 부사장은 모델 시스템 전문가로 모델 알고리즘 개선 및 설계 최적화 등을 통해 5G 모뎀 성능 향상 및 모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성과로 이번 승진자 중 최

하드웨어 신기술 주도 문성훈

5G 모뎀 경쟁력 높인 이정원

D램 신공정개발 기여 이금주

신기술개발 전문가 임원 등용

계열사 인사도 기술인재 약진

연소 부사장이 됐다.

최연소 상무인 배범희 DX부문 생산기술연구소 하드웨어기술그룹 상무는 세계 최초로 RF 신호전송, 플렉시블 PCB 등 미래 주력기술 확보와 다수의 논문·특허를 출시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

플래시 제품개발 전문가 이병일 DS부문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PA1팀 상무는 신공정 이해도와 최적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V낸드 신제품 적기 개발 및 제품 특성 개선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을 중시하는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



문성훈 부사장



이정원 부사장



이금주 부사장



강보경 상무

임원 인사에 반영되면서 여성 기술 인재들도 다수 임원으로 발탁됐다.

이금주 반도체 연구소 D램 공정개발팀 부사장은 지금까지 삼성전자 D램 공정의 미세화 한계 극복에 기여해왔다. 수 세대에 걸쳐 한계 극복을 위한 신공정개발 및 개발 제품 양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강보경 S.LSI사업부 디자인플랫폼 개발팀 상무는 보안 반도체 설계자산(IP) 알고리즘 전문가다. 차별화된 반도체 IP 개발과 상용화로 모바일과 자동차용 SoC 사업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성장 잠재력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해 30대 상무·40대 부사장 등 젊은 리더가 다수 배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임원인사를 발표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서도 기술 인재의 약진이 돋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김성봉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 기술혁신팀장 부사장, 유경진 중소형 디스플레이사업부 PE팀장 부사장 등이 승진했다.

삼성전기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MLCC·카메라모듈 사업과 전장 사업에서 시장 지배력 강화를 목표로 임승용 패키징세종 제조팀장 부사장 등을 승진시켰다.

삼성SDI 역시 데이터 기반의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김기현 상무,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 이승원 상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대솔 기자 citizen@

<SK그룹 회장>

최태원 “보호주의 회귀에 韓·美·日 협력 강화”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 포럼

현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

한·일 양국 미래 초점 맞춰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 시장의 보호주의화 기조 속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미들버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포럼에서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지금 처한 문제가 뭔지 이해의 깊이를 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시장이 분리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상대를 훨씬 더 이해해야 한다”며 “자유시장 형태보다는 (시장이) 규제되고 국수주의적, 보호주의적 형태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이 결국 각 정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미들버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최종현학술원

의 정책, 규제와 관계가 있다면서 “각국이 어떤 틀을 만드느냐, 그것을 왜 만드느냐, 그게 상대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이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날 한·미·일 협력을 위한 환경

이 지금이 더 낫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TPD 개최사에서는 과거사가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며 “우리는 우리 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역사학자 E.H.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인용해 “그는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라고 말했다”며 “지난해 우리가 (이 행사에서) 공급망과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것처럼 (양국) 사람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미래 협력을 위한 많은 어젠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우리가 어디에 있고, 미래 어젠다가 무엇이며, 실제로 협력할 방법이 뭔지를 다룰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한 일 두 나라에 좋은 수단이 될 것이며 한·미·일 3국 관계에도 유익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조현준(왼쪽) 효성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쉘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베트남 주석 만남 조현준 “친환경 미래산업 투자 확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응우옌 쉘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을 4년 만에 다시 만나 베트남의 미래 산업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회장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 중인 폭 주석을 접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등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회장과 폭 주석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폭 주석이 총리 시절 베트남에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두터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폭 주석에게 “효성이 글로벌 팬데믹과 세계 경제 불황의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확보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 전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 스마트 전초기기로 육성하는 등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폭 주석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친환경·바이오·소재·신기술 분야의 추가 투자를 응원하며,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효성은 2007년 베트남 처음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5억 달러(약 4조6000억원)를 투자해 베트남 전역에 약 6곳의 생산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베트남 외자기업 투자액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강문정 기자 kangmj@



한진만(왼쪽)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과 정석근 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네이버 ‘AI 반도체 솔루션’ 맞손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협력 강화

삼성전자는 네이버와 AI 시스템의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고 파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AI 전용 반도체 솔루션 개발은 고도의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함께 AI 알고리즘 개발·검증, AI 서비스 경험과 기술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각 분야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이번 협력을 통해 AI 시스템에 최적화된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회사는 AI 시스템의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해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Computational Storage) 기술인 스마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와 고성능 메모리에 연산 기능을 내장한 HBM-PIM(Process-

ing-in-memory), PNM(Processing-near-memory),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반의 CXL(Compute Express Link) 등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메모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융복합을 통해 메모리 병목현상을 극복하고, AI 시스템에 최적화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를 운용하면서 학습이 완료된 초대규모 AI 모델에서 불필요한 파라미터(매개변수)를 제거하거나, 파라미터 간 가중치를 단순하게 조정하는 경량화 알고리즘을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에 최적화해 초대규모 AI의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HBM-PIM, CXL 등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대솔 기자 citizen@

한화솔루션, 美와이너리 ‘세븐 스톤즈’ 인수

리조트 사업 경쟁력 강화 일환

한화솔루션이 미국 최대 와인 산지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세븐 스톤즈’를 인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최근 미국 법인을 통해 세븐 스톤즈 와이너리를 3400만 달러(약 445억 원)에 사들였다.

세븐 스톤즈 와이너리는 총 18만2000여㎡(약 5만5000평) 부지에 유기농 포도밭

약 1만2000㎡, 와이너리 1393㎡, 레지던스 613㎡ 등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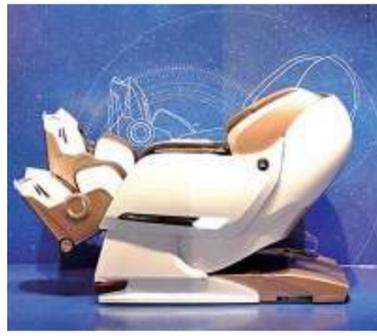
한화솔루션 측은 이번 와이너리 인수에 대해 리조트 사업을 하는 한화솔루션 인사이드 부문의 리조트 사업 경쟁력 강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 인사이드 부문은 에너지솔루션 사업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사업부, 도시개발 사업부가 모여 출범한 사업 부문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고물가에 소비자 지갑 닫을라... 헬스가전 업계 '긴장'

엔데믹 전환 영향 성장세 꺾여
바디프랜드 3분기 매출 8% ↓
내년 경기침체에 내수둔화 전망
비싼 가격 부담... "마케팅 강화"



왼쪽부터 세라젼의 척추의료 가전 세라젼 V6, 코지마의 카이저 안마의자, 바디프랜드의 팬텀 로보.

각사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내년 내수 소비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가전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매출은 4200억 원으로 작년 동기(4400억 원) 대비 5% 가까이 줄었다. 3분기 매출만 떼어서 보면 1285억 원에서 1183억 원으로 8% 가까이 감소했다. 업계에선 세라젼, 휴테크, 코지마 등 안마의자와 척추의료 가전을 앞세운 다른 헬스케어 가전업체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라젼의 경우 업계 1위였던 바디프랜드를 뛰어넘을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4분기부터 기세가 조금은 꺾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마의자를 앞세운 헬스가전 업계는 가구, 가전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에 반

사이익을 누린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야외 활동과 해외 여행이 막막하고, 실내 생활의 비중이 커지면서 헬스가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바디프랜드의 매출은 2019년 48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5560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5913억 원)에는 6000억 원에 육박했다. 세라젼의 매출액 역시 3000억 원(2020년)에서 지난해 667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코지마도 2019년 1075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1555억 원으로 늘었다. 기업

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간판으로 내세우며 성장세를 키웠다.

헬스케어 가전의 성장세가 꺾인 요인 중 하나는 엔데믹 전환이다. 바디프랜드의 경우 지난해 팬텀 메디컬케어 제품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상반기 팬텀 로보 제품을 출시하며 '홈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지만 해외여행 등으로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 가능성, 비싼 가격은 더 큰 약재다. 바디프랜드가 올해 출시한 팬텀 로보의 경우 일시불 가격

이 700만 원에 육박한다. 헬스케어 가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마저 비싸 소비자들이 다른 지출 대비 지갑을 더 일찍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어느 업종보다도 직격탄을 빨리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로 내년 가계소비 여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절반 이상인

56.2%는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내년 가계 소비지출은 올해에 비해 평균 2.4% 감소할 전망이다. 소비지출을 줄이는 주요 이유로는 '물가 상승'(4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비활성화 시점은 '2024년 상반기'(24.1%)와 '2023년 하반기'(21.9%)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나 렌탈이 가능하다고 해도 경기가 둔화되면 필수 소비가 아닌 씬씀이부터 줄이지 않겠냐"라며 "헬스케어 업종도 내년 시장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기존 영업망을 유지하며 내실을 다지거나 체험 마케팅을 더 강화하는 등 내년 경기 침체를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코지마 측은 "고물가, 고회율 등 대외적 변수가 많은 시기인 만큼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과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전시장 위주의 체험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중소 27% "내년 수출 여건 나쁠것" 최대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중소중앙회 514곳 조사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내년 수출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환경에서 최대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중소기업 514개를 대상으로 '2023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무역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26.7%가 '나쁘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44.7%가 '보통', 28.6%는 '좋다'고 응답했다.

수출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중은 작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조사결과'에선 '좋다'는 응답이 40.4%였고, '나쁘다'는 응답이 5.2%였다. 부정적인 전망이 21.5%포인트(p)나 늘었다.

기업들은 가장 큰 수출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상승'(54.9%)을 지목했다. 이어 △'환율변동'(44.4%) △'물류예로'(37.5%) 순으로 응답했다. 수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50.0%)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수출 국가 다변화'(19.6%)와 '수출 보험'(19.1%)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해외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30.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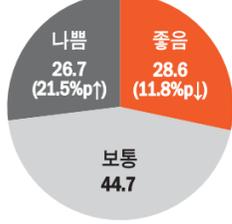
선박·항공 확보 및 운임 지원(25.7%)과 신시장 개척 등 수출다변화 지원(14.6%)도 필요하다고 봤다. 수입입 중소기업들은 최근 고회율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수출과 수입의 비중에 따라 피해 정도는 엇갈렸다. 조사에선 응답기업의 46.7%가 최근 환율급등으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입기업 53.1%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반면, 수출만 하는 기업에선 41.8%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수출기업이 수출입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셈이다. 실제 환율급등에 따른 피해 유형을 보면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한 피해비중(85.4%)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에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지원책으로 '원자재 구매 금융·보증지원'(48.6%)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주요국 통화정책도 유동적이어서 내년도 중소기업의 수출전망이 밝지 않다"며 "원자재 조달·물류 운임 등 비용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케팅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 거래선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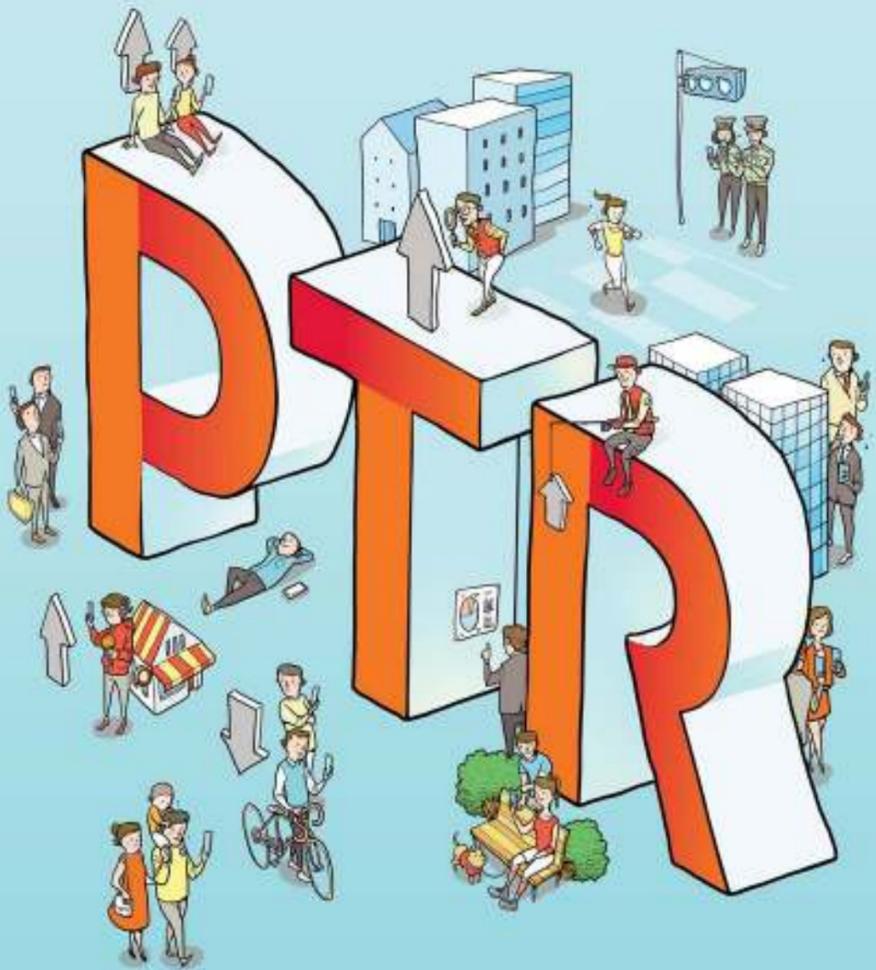
2023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단위: %)



※ ()는 작년 전망 비교 증감률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부정적 전망 21.5%p 늘어
"환율·물류 등 발목 잡을 것"
"마케팅 확대·금융지원 필요"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려(PTR)! SK증권 PTR랩



PTR : 주기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상장시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O나 PBR처럼 기술가치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2022.11.19 - 2023.11.18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투자자는 랩 계약에 대해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랩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랩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이 랩 계약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추취),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합의의 때에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TX 파산’ 후폭풍... 부테린 “가격 아닌 기술을 보라”

〈이더리움 창시자〉

코인 시장 겨울 길어지나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신청 이후 코인 시장의 규제가 본격화 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으로 ‘페이코인’이 규제 영역에 들어올 가능성도 점쳐진 상황이다. 한편, ‘크립토 겨울’이 길어짐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마다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가상자산 가격보다 ‘기술’ 자체에 집중하라는 트윗을 남기며 투자자들을 독려했고 나섰다. 국내 전문가 역시 이제는 암호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FTX發 ‘자체발행코인 경계령’에...페이코인 ‘겹약재’=FTX 사태로 자체발행코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하는 페이코인(PCI)도 규제 영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6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발행코인이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FTX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인 FTX토큰(FTT)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파산한데 이는 조치로 보인다. 동일 회사에서 코인의 자체 발행부터 유통까지 진행될 경우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

‘페이코인’ 규제 영역 가능성 “자체발행코인 기준 모호해” 가상자산 전망 ‘가격’에 초점 “기술·앱 생태계에 집중해야”

문이다.

이에, 페이코인은 자체발행코인을 발행했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발행코인이란 가상자산거래소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이다.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중개 등을 할 수 없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닥, 프로비트, 코인빗 등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자체 거래소 토큰을 상장폐지하기도 했다. 다만,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발행코인이 거래소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차트를 조작으로 시세조작의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페이코인은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발행 토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세 조작의 관점”이라면서 “레버리지 자체는 자기발행코인



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같은 경우도 자기발행코인으로 취급받지 않음에도 담보로 문제가 됐다”라면서 “자체발행코인의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위믹스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시세’ 전망에...부테린 “기술에 집중” 일침=이처럼 FTX발 ‘크립토 윈터’가 지속되자, 전문가들은 저마다 ‘가격’ 전망을 내놓는 상황이다. 5일(현지시간) 마이크 맥클론 블룸버그 상품 전략가는 스탠스베리 리서치와의 인터뷰에서 “시

장이 V자로 반등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암호화폐는 이미 80%나 하락했고, 약세장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는 “FTX 파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내년 6월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 밖에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등은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예상한 반면, 여러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은 곧 비트코인의 바닥이 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550~500일 전인 현재가 저점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가격’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블록체인 기술이 눈에 보일만큼 성공한 활용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투자자들에게 ‘기술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4일 약 27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가상자산 투자자 ‘코인맘바(CoinMamba)’가 트위터에 “9년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스캠과 사기에 너무 지쳤다”라면서 투자를 그만두겠다는 트윗을 남겼다. 이에 부테린은 “가격과 거래에 거리를 두고, 기술과 앱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조언했다. 해당 트윗에는 창평자오 바이낸스 CEO도 “계속 가자”라는 댓글을 남기며 동의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제는 ‘어떤 기업이 참여했다’, ‘어디에 쓸 예정이다’ 같은 건 별 의미가 없다”라며 “(부테린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제 암호화폐를 볼 때, 그 암호화폐가 어떤 고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지, 그 기술이 얼마나 유망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이중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 시정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

이중호 “카톡 서버 이중화 미흡... 1개월 내 개선·보상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카카오 먹통 사태’ 조사결과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대란은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부실한 화재대응시스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카카오의 경우, 판교데이터센터와 다른 데이터센터간 이중화시스템을 갖췄지만, 운영관리도구를 판교데이터센터에서만 이중화하는 바람에 정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정부는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주요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와

SK C&C, 배터리 방화조치 없어 카카오, 장애 복구에만 127시간 ‘운영 및 관리도구’ 다중화 계획 국민 피해 구제 원칙 설정 요구

향후 계획을 수립해 1개월 이내 보고토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화재에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카카오톡,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들이 최대 127시간 33분간 장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중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판교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BMS)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에 대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조사결과, SK(주) C&C는 2016년 리튬이온배터리를 설치한 뒤 특화된 방화조치는 하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부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배치돼 있었다. 또 화재 대비 매뉴얼은 있었으나 살수 상황,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상황 수준까지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과 모의훈련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는 장애 복구에 127시간 33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및 관리도구’가 다른 데이터센터에 이중화돼 있지 않아 대기(Standby)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했고, 서비스장애 복구 지연됐다. 일부 서비스 구성 요소도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 기능이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된 점도 피해를 키웠다. 또 일부 서버, 네트워크 등 오류에 대비한 재난 대비 훈련

등 조치는 했으나 1개 데이터센터 전체가 일시에 불능이 되는 대형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카카오에는 서비스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비롯해 핵심 기능 등에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데이터센터 전소, 네트워크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을 세우고 모의 훈련도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장애와 관련된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먹통사고로 카카오는 현재 10만5116건의 피해를 접수했으며, 유료 서비스 피해는 1만4918건, 금전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는 1만3198건이 접수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더 큰 도약 위해 환영”... KT노조, 구현모 대표 연임 지지

“매출 성장·디지코 전환 등 성과”

KT노동조합이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KT노조는 6일 “KT 노동조합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더욱 큰 도약을 위해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 노조는 한국노총 IT연맹 소속으로 KT 전체 조합원의 99%인 1만6000여 명이 속한 다수 노조다.

노조는 “구 대표가 KT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와야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KT의 미래비전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구현모 대표의 대표이사 연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하는 이유로 구대표의 성과를 꼽았다. 노조는 “구 대표가 10여 년 만의 내부출신 최고경영자(CEO)로서 3년 전 대표이사로서 선임된 이후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

구대표의 선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을 지속했고, 하향세를 보이던 주가도 대폭 상승해 기업가치를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조합원을 비롯한 임직원의 근로조건도 향상됐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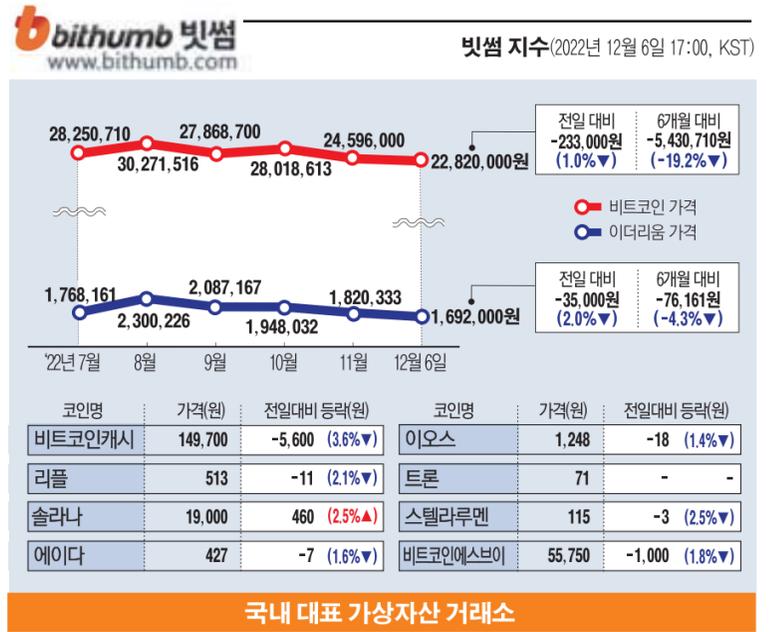
노조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성과가 단기 성과를 위한 인력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협하면서 달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업체질 개선을 통

해 달성했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 대표가 ‘디지코 KT’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성장이 정체된 유무선 통신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조는 “사업의 성장과 함께 고용도 점차 증가하고 KT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등 통신산업 매향으로서의 위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구대표는 지난달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구대표의 연임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도시정비 '역대급 수주 잔치'... 막판 레이스도 치열

연말로 접어들면서 올해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레이스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이미 6곳이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한 상황이다. 1위인 현대건설은 '10조 클럽'을 눈앞에 뒀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3일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에 있는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부문 5조 클럽에 입성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실적인 3조8993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대우건설은 올해 5월 신길우성2차·우창재건축 사업을 시작으로 △대전 도마변동 13구역 재개발 △수원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 △한남2구역 재개발 등 현재까지 전체 15개 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전체 수주액은 5조2763억 원으로, 누적 도급액 기준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주 1위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인 9조3395억 원의 실적을 쌓으며 10조 클럽을 목전에 뒀다. 연간기준 건설사 수주 역대 최고 기

현대건설, 수주 10조 눈앞 '선두' GS건설, 서울서만 8건, 6.3조 '2위' 3위 대우건설, 첫 5조 클럽 '맹추격' DL이앤씨·포스코·롯데도 4兆 훌쩍

10대 건설사 중 6곳이 최대 수주액 이달 '가락상아1차' 등 시공사 선정

록은 GS건설이 2015년 세웠던 8조100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전체 14곳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사업별로는 재개발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모델링 4건, 재건축 1건, 가로주택정비사업 1건 순이었다.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 (THE H)' 제안을 통한 수주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제안을 통해 △용산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경기 과천시공8·9단지 재건축 △광주 광천동 재개발 △서울 방배 삼호아파트 12·13동 가



로주택정비사업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등 6곳의 시공권을 따냈다.

GS건설은 6조 클럽에 입성하면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다. GS건설은 1월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과 충북 충주 교현중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추가 수주도 유력해 7조 원대 실적도 기대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조6073억 원 규모의 부산 죽진3구역 재개발 사업을 단독으

서울에서만 8곳의 시공권을 따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전체 수주액은 2조9835억 원으로, 이는 업계 최고 수치다. 이달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과 충북 충주 교현중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추가 수주도 유력해 7조 원대 실적도 기대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조6073억 원 규모의 부산 죽진3구역 재개발 사업을 단독으

로 수주하면서 전체 수주 4조5965억 원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6년 3조3848억 원으로, 6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포스코건설은 전체 4조5892억 원을 수주하면서 준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체 수주 중 대부분인 3조111억 원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따내면서 지난해에 이어 리모델링 시장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성북역 리버파크아파트 리모델링 △수원 영통 벽적골주공8단지 리모델링 △창원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등을 수주했다.

이외에도 △롯데건설 4조2620억 원 △현대엔지니어링 2조1647억 원 △삼성물산 1조6919억 원 △SK에코플랜트 1조5207억 원 △HDC현대산업개발 1조307억 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간 수주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아직 시간도 남은 만큼 순위는 금방 뒤집힐 수 있다"면서도 "최근 분양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들은 유찰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3000만원 현금 드려요"... 청약시장 침체에 건설사 '눈물의 이벤트'

청약시장 한파에 건설사의 고민이 깊다. 분양만 하면 완판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청약시장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또 청약'으로 통하던 수도권에서 미분양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줍줍(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는 단지도 여럿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현금 지급 등 금융 혜택을 내걸며 수요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11월 7일 기준)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19.8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서울 164.1대 1→22.0대 1 △세종 195.4대 1→49.6대 1 등 순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4점에 불과하다. 지난해 청약 당첨 가점 평균이 62점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

서울 구로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중도금 무이자·3000만원 현금 지급 칸타빌 수유팰리스' 최대 15% 할인

수입 경차 경품에 관리비 대납까지 파격조건 내걸고 '손님 모시기' 사활

분양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함께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열기도 식어가고 있다"며 "집값 하락기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의 욕망 가리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약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을 내세워 수요자 찾기에 나섰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들어서는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와 현금 지급 혜택을 내걸었다. 계약자를 상대로 중도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마련된 '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금 5·6회차 이자에 해당하는 700만 원에 자체적으로 2300만 원을 붙여 현금 3000만 원을 입금해 주기로 했다. 또 계약금 분납제·발코니 확장 공사 무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일부 타입을 대상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최대 15%의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

다. 이 경우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다. 2주택자 이상인 수요자들에게는 취득세를 일부 지원한다. 최근에는 관리비를 대납해주는 조건도 내걸었다.

지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를 위한 금융 혜택도 눈길을 끈다. DL건설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헤이리'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를 제공한다. 발코니 확장 공사도 무료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아널로 스위첸'은 BMW 미니 쿠퍼 5도어 클래식 차량을 내걸었다. 또 청약 접수 대상자 중 5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했다. 화성시 송동동에 들어서는 '동탄푸르지오 시티 워크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벤츠 등 자동차, 가전제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하고, 내년 역시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단기간 분위기 반전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계약률을 높여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할인 분양을 비롯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동욱 기자 toto@

11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 14.2% '역대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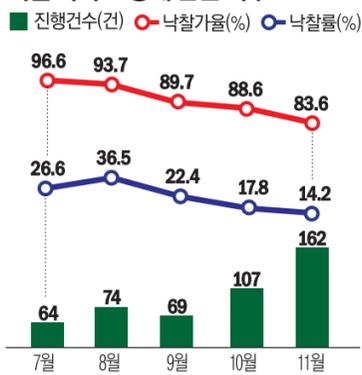
전국 낙찰률 32.8% 올 최저치 경신 낙찰가율도 5%p 푹, 80%선 무너져

전국 경매시장에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904건으로 이 중 62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2.8%로 전월(36.5%) 대비 3.7%포인트(p) 하락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09년 3월(28.1%)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은 78.6%로 전월(83.6%) 대비 5.0%p 하락하면서 2013년 5월(79.8%) 이후 처음으로 80% 선이 무너졌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가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

서울 아파트 경매 관련 지수



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전국 아파트 경매지표 내림세는 멈추질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4.2%로 전월(17.8%) 대비 3.6%p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3.6%로 전월(88.6%)보다 5.0%p 떨어

져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2.6명)보다 0.9명이 증가했다. 매매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경매시장 아파트 매수세도 자취를 감췄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40.8%로 전월(31.9%)보다 8.9%p 상승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으로 전월(5.8명)과 비교하면 1.5명이 늘었다. 가격 부담이 적은 경기 외곽의 감정가 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찰가율은 78.9%로 전월(81.0%)보다 2.1%p 하락했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31.1%) 대비 8.2%p 하락한 22.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69.7%로 전월(78.7%)보다 9.0%p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동욱 기자 toto@

LH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46억 손실"

전국 174개 공구서 공사 차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하루 최대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지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었다.

공사 차질이 계속돼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LH는 건설사에 공사 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입주자에게는 입주 지연 기간만큼 자체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 원으로 추정

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등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연대 측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지금도 ‘만년적자’인데... 금감원 “실손보험 부채 과소평가”

보험업계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재무건전성 지표(K-ICS) 도입을 앞두고 진행한 현장점검에서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에 대해 무더기로 지적했다. 낙관적 가정으로 부채를 과소평가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는 지금도 ‘만년 적자’인 실손보험이 K-ICS 시행 후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내년 K-ICS 시행에 대비해 실시한 현장점검 내용을 공유했다. 내부통제 구축, 계리적 가정 수립과 신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 수립 시 보완할 만한 필요사항을 당부했다. 목표손해율을 사용한 일부 보험사에서 미흡 사례를 발견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이 공유한 미흡한 사례로는 △목표손해율 도달 시까지 손해율이 높은 계약들은 현재의 높은 손해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을 사

내부통제·지급여력 등 미흡 지적 계리적 가정 수립 보완사항 당부

업계 “킵스 도입 땀 건전성 우려”

용하지만, 손해율이 낮은 계약들은 합리적 근거 없이 현재의 낮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가정한 경우 △갱신보험료 조정 시 과거 통계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도(25%)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출시 5년이 지나면 최대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최대한도인 25%를 매년 최대치로 인상하지 않고, 아예 인상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매년 25% 올린다고 가정해버린 곳이 있었다”며 “이러면 추후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때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최근의 손해율 수준 및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경험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실적보다 낮은 손해율을 적용하거나 △지속



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계약에 대해 낙관적 갱신가정을 적용해 위험률차손익은 0으로 고정된 후 사업비차에서 잔여기간 동안 마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등의 보험부채 추정방식을 적용한 점 △합리적 근거 없이 일정 기간 이후에 의료급여 인상 등 보험금 상승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 경우 등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내년 중 현장점검에 다시 착수해 미흡했던 사례들이 시정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지금도 적자인 실손보험이

새 회계제도 도입 후 건전성에 부담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결정권이 보험사에 완전히 부여되지 않은 손실부담계약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IFRS17 도입 이후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보험사가 발생할 것이라 목소리도 나왔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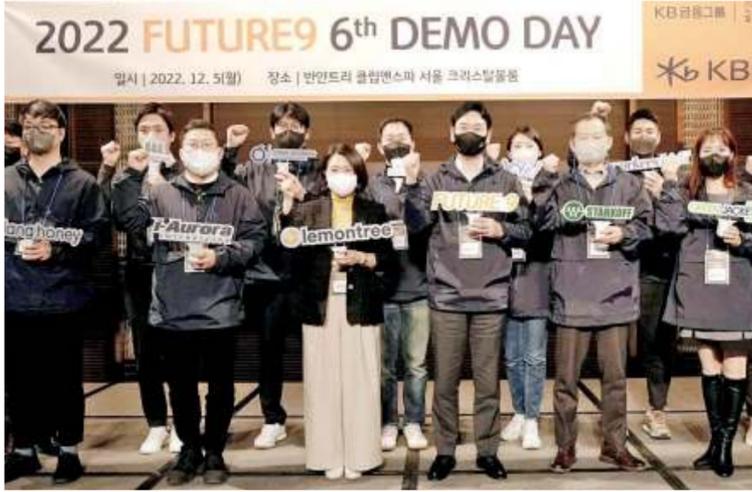
앞서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에 IFRS17이 도입되면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현재의 손해율이 유지된다면 IFRS17 도입 시 손실부담계약이 돼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손보험 효율 변동은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어떤 실손 상품을 많이 팔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보험 효율은 미래에 받을 것을 정하는 것이고 K-ICS는 받은 보험금을 회계처리하는 것이니 효율변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현재 실손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적자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적자액은 지난해 2조8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적자액이 3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이유로 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국민카드 ‘퓨처나인’ 6기 데모데이 KB국민카드는 5일 혁신 스타트업들을 발굴·협업하는 ‘퓨처나인(FUTURE9)’ 6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실적 설명회(IR) 및 공동사업화 성과와 전략방향 소개하는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총 12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각 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KB국민카드와 추진하고 있는 협업 및 공동사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KB국민카드

<환매조건부채권>

농협생명, 500억 규모 RP 매도

‘역마진 리스크’ 저축성보험 대체 단기 자금조달... 유동성 ‘숨통’

업계 “이달 조단위 자금유출 우려” 실행사, 보험사 34곳 유동성 점검

보험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에 해당하는 NH농협생명도 500억 원 수준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했다. RP는 금융사가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짧게는 1일 길게는 3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발행되는 초단기 자본조달 수단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생명은 지난 2일 500억 원 규모의 RP를 매도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단기 유동성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생명이 발행한 RP는 증권사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유동성 위기 완화를 위해 RP매도를 허용해줬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 차입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과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자금이탈 방지를 위한 RP매도가 ‘유동성 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데 이어, 이런 법령해석을 담은 문서를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에 전달했다.

앞서 농협생명은 5% 후반대 확정금리형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출시하려다 철회했다. 유동성 위기를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한 현금 확보로 버텨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역마진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돌연 발을 뺐다.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RP매도는 저축성보험 판매보다 단기자금 조달 측면에서 나은 방안”이라며 “다른 보험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보험사 34곳을 대상으로 유동성 점검에 돌입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각사별로 매일 생명·손해 보험협회에 유동성 비율과 자금조달 계획을 보고하며 살피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자금이 움직일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달 안에 보험업계에서 조 단위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역대급 실적에 ‘희망퇴직’ 보상 확대 전망 연말 짐 싸는 ‘은행맨’ 더 늘어날까

농협 이어 수협도 신청 접수 최대 39개월치 임금 지급키로

“주요은행 올해 신입채용 확대 인건비 고려 퇴직규모 커질 듯”

NH농협은행에 이어 SH수협은행도 희망퇴직에 돌입하면서, 연말 은행권이 희망퇴직을 본격화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의 호실적과 신규 채용 규모 확대 등으로 희망퇴직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심사에 들어갔다. 올해 SH수협은행 희망퇴직 신청 가능 조건은 전 직급 15년 이상이다.

같은 기간 NH농협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NH농협의 희망퇴직 대

상자는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1982년 12월 31일 생)부터 만 56세(1966년 1월 1일~12월 31일생)인 직원이다.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과 관련해 이달 노사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전달한 희망퇴직안을 사측이 검토 중으로, 이달 중 논의를 마치면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내년 1월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에는 희망퇴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연말 은행권의 희망퇴직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올해 사상최대 이익을 실현하면서 보상안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실제 NH농협은행의 특별퇴직금은 월평균 임급의 20개월~39개월 치로, 지난해 20개월 28개월보다 금

액이 커졌다. SH수협도 최대 37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창업지원대출이나 자기계발비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입 채용을 대거 늘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이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하반기 1000명에 달하는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입직원 채용과 명예퇴직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인건비 측면을 고려하면 명예퇴직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노조에서도 희망퇴직 규모를 늘리는 것에 크게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희망퇴직자들의 수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 초 1700여 명이었던 5대 은행 희망퇴직자 수는 지난해 초 2000명대를 넘어섰다.

문선영 기자 moon@

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이석준 前 국무조정실장 유력

손병환 회장 사실상 교체 수순 尹정부 첫 관료출신 금융권 CEO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이석준(사진)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이 차기 회장에 오를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5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에 관료출신 외부 인사가 오르는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차기 회장에 외부인사인 이 전 국무조정실장을 낙점하면서 손병환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 전 실장은 1959년생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명



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예산실장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정책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손 회장이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농협금융이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1조97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손 회장은 경영 능력 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임기가 가까워 오면서 외부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농협금융은 정치권과 중앙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농협중앙회가 정권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료 출신 인사를 차기 회장으로 원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농협금융은 2012년 출범 이후 주로 관료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전임 회장은 신동규(행정고시 14회), 임종룡(행시 24회), 김용환(행시 23회), 김광수(행시 27회) 등이다. 손 회장은 신총식 초대 회장 이후 처음으로 나온 내부 출신 CEO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은 본인이 직접 연임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연임이 어렵지 않겠냐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금융은 지난해 중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은 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법근 기자 nov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해

공부방이란 희망을 선물합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부방 리모델링 지원 사업 수혜가정 1호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인적분할=주가하락’에도 ‘쪼개기’ 붐… 불안한 개미들

올해 13개 상장사 인적분할

소문난 맛집에는 공통점이 있다. 메뉴가 딱 하나이거나 한 분야만 고집한다는 것이다. 요리사 한 명이 한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요리를 산만하게 만들다 보면 맛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요즘 기업 경영 트렌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던’ 시대는 갔다. 몸집 불리기에 전념하던 기업들이 다시 ‘쪼개기’를 통한 선택과 집중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인적분할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저마다 소문난 맛집이 될 것이라지만, 손님(투자자)들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소문난 맛집만들기 =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이수화학은 이사회를 열고 석유화학사업부문(‘이수화학’)과 정밀화학사업부문(가칭 ‘이수스페셜티케미칼’)으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대한제강도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존속회사인 디에이치오는 자회사 관리와 신규 투자를 맡고, 신설회사인 대한제강은 기존 주력 사업 부문인 철강 사업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OCI는 화학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

대한제강·이수화학 등 줄이어
주가 상승은 13개사 중 1곳뿐

“기업가치 재평가 기회” 긍정
“자사주에 신주 배정 ‘지분율↑’
지배력 강화 꿈” 지적

설법인 설립한다. 존속법인 OCI홀딩스는 향후 OCI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현대백화점그룹도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홀딩스(신설)와 현대백화점(존속)으로 분리하고, 지주사인 현대백화점홀딩스가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존속)와 현대그린푸드(신설)로 나뉜다.

한화솔루션은 리테일 부문에 대한 인적

분할을 단행해 신설법인 한화갤러리아를 설립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자동차 부문을 떼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으로 인적분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인적 분할을 보는 시선은 굵직 않다. 올해 인적분할을 발표한 기업 13곳 가운데 인적분할을 발표한 이사회 결의일 다음 날에 주가가 오른 곳은 코오롱글로벌 단 1곳에 불과했다.

◇대주주 지배권 강화 꿈수인가 = 인적분할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다. 주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가치 재평가를 도

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과 대주주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꿈수이자 지주사 할인이 불가피하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상충한다.

기업분할은 해당 기업의 주력사업 외에 주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사업 부문 성장 가능성을 키우면서 기업가치를 재평가할 기회를 준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그간 한 회사에 섞여 있던 사업들이 분리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인적분할은 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과 비교해 기존 주주들이 신설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대로 나눠 가지게 되므로 주주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크지 않다. 물적분할보다 주주친화적인 셈이다. 일례로 이달 초 안다자산운용은 KT&G에 한국인삼공사(KGC)의 인적분할 상장을 제안하는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다. 인삼 사업을 따로 분할 상장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성태운 연세대학교 교수는 “물적분할은 주주 비율과 관련 없이 이뤄져 소수 주주 중심으로 가치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 이해관계 문제가 존재한다”며 “인적분할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법인을 나누는데, 기존 주주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충하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자사주 마법”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배주주의 배만 불리는 꿈수라는 것이다. 자사주 마법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존 회사 자사주에도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출연 없이도 지분율을 높일 수 있어 외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인적 분할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지배주주 지분율을 올리고 일반 주주 지배권을 약화하는 자사주 마법으로 (인적분할은) 예전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며 “과거에도 수많은 지주 회사가 이것을 악용해 배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기업 쪼개기에 따른 지주사 할인도 문제다. 인적분할의 경우 대부분 지주사-사업회사로 체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지주사 가치 절하가 불가피하다. 최근 NH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지주사 8곳의 주가는 평균 50% 이상 할인됐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박민규 기자 pmk8989@

‘1세대 VC’ 다올인베스트 매각 우리금융·유진 등 인수 후보로

희망 매각가 2000억원 이상

다올금융그룹이 벤처캐피탈(VC) 계열사 다올인베스트먼트를 매물로 내놨다.

6일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다올금융그룹은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 추진을 위해 잠재 인수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지난 달 태국 법인 매각 추진에 이은 두 번째 매각 소식이다.

이번 매각도 지난달 태국 법인 매각 때와 같이 유동성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 경색이 지속하자 자회사 매각을 택한 것이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희망 매각가는 2000억 원 이상 수준이며, 우리금융지주와 유진금융그룹 등 국내 대형 금융사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1순위 인수 후보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성사시킨 뒤 비금융 포트폴리오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M&A를 검토해왔다.

유진그룹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다올그룹에 다올저축은행(전 유진저축은행)을 1580억 원에 매각하면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종합금

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유진그룹은 2020년 스프링벤처스를 신설해 VC 부문에 진출했으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다올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웹트레이딩서비스(WTS) 등 비주력 조직 부문을 정리하고, 희망퇴직을 받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태국 현지 법인의 매각 작업도 공식화했다. 매각가는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올그룹 내 알짜 매물로 꼽히는 다올인베스트먼트까지 매각하면 그룹 차원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81년 설립된 다올인베스트먼트는 국내에선 ‘1세대 VC’로 손꼽힌다. 지분 52.0%를 보유한 다올투자증권이 최대 주주기도 하다. 국내외 1200여 개 벤처기업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 IPO에 성공한 기업만도 약 300여 개다. 최근 대표적인 투자 성공 사례로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규모(AUM)은 약 1조1745억 원이다. 올해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최근 3000억 규모 블라인드 펀드 결성을 마무리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반도체 한파에 다시 ‘5만전자’… SK하이닉스 ‘연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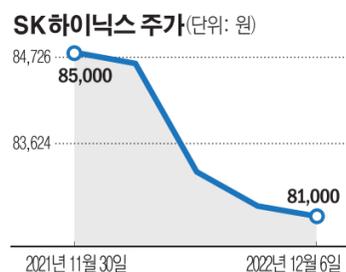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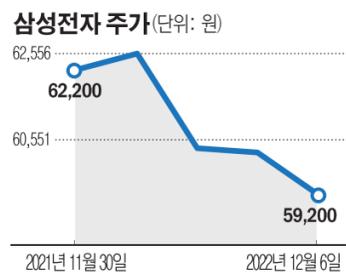
중봉쇄 약제에 상승동력 약화 반도체 매출전망 하향 잇따라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나란히 추락했다. ‘7만전자(주가 7만 원)’를 기대했던 삼성전자는 한 달 만에 ‘5만전자’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장중 연저점을 갈아 치웠다.

6일 삼성전자는 1.82% 하락한 5만9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종가 8만1000원)는 장중 7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연저점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올 9월 말 5만1800원으로 연저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상승세를 보였다. 내년 반도체 업황 반전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중국 시장을 이탈한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사들이며 반사이익을 본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지난해 7월 6만 원을 넘긴 뒤 11월 6만 2900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중국발 약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다시 조정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봉쇄정책이 강화되자 반도체 부진 우려가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성장률을 2.2%에서 1.8%로 낮추면서 반도체 부진이 내년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봤다.

SK하이닉스는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가 4분기에 1조20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남대중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예상보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 실적 컨센서스(전망치 평균) 하향 조정이 아직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5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1.58% 하락했고, 마이크론과 AMD도 각각 1.17%, 1.81% 떨어졌다.

서상영 미래셋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절감 소식이 진행되자 미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등 개별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강달러·고금리에 따른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이 한국 증시 하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 통했나… 채권 대차잔액 3.4兆 줄어

10월 143.9兆서 140.5兆로

채권 공모도가 줄고 있다. 미국 고강도 긴축이 점차 완화될 것인 전망에 채권 가격 상승(채권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기관투자자가 늘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대차거래잔고금액은 140조5686억 원까지 떨어지며 10월 말 143조9331억 원보다 3조3645억 원 감소했다. 11월 말 142조1445억 원 보다는 1조5000억 원 넘게 줄었다.

대차거래 잔고금액은 올해 7월 말 129조2670억 원, 8월 130조6476억 원, 9월 143조4709억 원, 10월 143조9331억 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11월 초에는 144조8784억 원(2일)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채권 대차거래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공모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국제 선물을 매수하는 동시에 고평가된 현물 채권을 미리 빌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채권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것이다. 채권 대차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추가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평가 손실을 방어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10월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차 거래 수요가 급등을 했다”가 11월 들어 금리가 하락 안정되면서 대차 잔고가 다소 감소했다”면서도 “다만 시장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대기세가 있어 금리 하락에 맞는 수준으로 대차 잔고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채안펀드 가동 등 당국 개입에 대해서는 “자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때 정책적 개입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혼란이 있었을 텐데 10월부터 적시성 있게 대응했다고 본다”고 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엔씨, 16개월 만에 ‘게임株 왕좌’ 탈환

연기금 매수에 두달새 43%↑

엔씨소프트가 게임 대장주 자리를 되찾았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일 대비 500원(0.11%) 오른 45만 5000원에 마감했다. 9월 28일 연중 최저가(31만8500원) 대비 42.86% 상승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라는 역대급 지식재산권(IP)을 가지고 게임 대장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문

제가 심화해 주가가 떨어지는데다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래프톤까지 등장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 100만 원이 넘는 주가는 3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은 연기금이다. 연기금은 10월 1일부터 이날까지 974억 원을 순매수했다. 한때 7조 원 안팎까지 내려갔던 시가총액은 현재 9조9891억 원으로 10조 원 턱밑까지 회복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형은 백화점·아우는 그린푸드... 현대백 책임경영 속도

<정지선 회장>

<정교선 부회장>

지주사 전환 청사진 나와

정지선, 백화점 등기임원 잔류
정교선, 그린푸드 등기임원 변화
현대지에프홀딩스서 모두 사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주요 계열사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신설 지주회사를 담당할 임원과 조직의 청사진이 나왔다. 6일 본지 취재결과 정지선 회장이 백화점 등기임원으로 잔류하고, 현대그린푸드 등기임원에서 내려온다. 반대로 정교선 부회장은 백화점 등기임원직을 내놓고 현대그린푸드는 비상근에서 상근 등기 임원이 돼 형은 백화점을, 동생은 그린푸드를 책임지는 경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앞서 9월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 분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홀딩스(신설법인)와 현대백화점(존속법인)으로, 현대그린푸드는 현대지에프홀딩스(존속법인)와 현대그린푸드(신설법인)로 각각 나뉜다. 각각의 지주사는 자회사와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담당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존속·신설법인에서 정지선·정교선 형제의 역할과 그에 따른 등기임원 선임 등의 변화다. 분할 이전 이들은 현대백화점의 상근 등기임원에 함께 올라 있으며, 현대그린푸드 역시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비상근으로 재직하는 등 형제경영을 지속해 왔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다만 분할 이후 현대백화점에서는 정 회장 홀로 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현대백화점홀딩스의 상근 미등기 회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에서는 등기임원에 오르지 않고, 현대지에프홀딩스의 비상근 등기임원직을 내년 주총에서 내려놓을 계획이다. 정 부회장의 경우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대백화점 등기임원에서 사임하고 기존 현대그린푸드의 비상근 등

기임원에서 상근으로 변경된다. 현대지에프홀딩스에서는 형과 마찬가지로 등기임원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간 지속했던 형제 경영은 유지하면서 정 회장은 백화점을, 정 부회장은 그린푸드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책임 경영 체제로의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거대소 상장심사 기준상 대표이사의 경우 이해 상충 여부와 관계없이 타 회사의 상근 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예정된 변화”라며 “계열 분리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기획조정본부의 영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에 속했던 기획조정본부는 현대백화점홀딩스로 옮겨가고, 기획조정본

부장인 장호진 사장이 홀딩스 대표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홀딩스 전반 조직은 기획조정본부 산하 경영전략실, 사업개발팀, 경영개선팀, 미래전략팀, 홍보실 등이 모두 소속을 옮겨 채울 계획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경우 분할 전 현대그린푸드 이진원 경영지원실장이 대표이사 맡을 예정이다. 기존 정병두, 신수원 사외이사 외에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를 내년 주총서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지주사에서 투자사업 등을 전담할 조직의 경우 현대그린푸드에 전략기획실이 잔류함에 따라 홀딩스 내 담당 조직 신설 가능성도 엿본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내년 주총에서 이종근 사내이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현재 현대백화점 내 기획조정본부에서 미래전략담당으로 재직 중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폐암 치료제 ‘렉라자’ 파란불... 국산 신약 새 역사 쓸까

유한양행, 임상 3상 효과 입증 국내 이어 美 FDA 허가 추진

유한양행이 성공적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확보한 국산 31호 신약 ‘렉라자’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허가를 추진한다. 국내 적응증 추가는 물론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유럽의약품청(EMA)까지 정조준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탄생에 기대하고 있다.

조육제 유한양행 사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한양행은 렉라자가 단독요법으로 경쟁약물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했고, 이를 결과로 증명했다”면서 “글로벌 판권을 가진 안센과 긴밀하게 논의해 FDA와 EMA 허가 신청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한 3세대 표적항암제다. 작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그해 8월부터 환자들에게 2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레저301(LESE301) 임상결과는 고무적이다. 지난 3일



6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유한양행 ‘렉라자’의 LASER301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조육제 유한양행 사장, 조병철 연세암병원 교수, 임효영 유한양행 전무, 오세웅 유한양행 연구소장.

(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아시아총회에서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렉라자는 1차 평가변수 무진행 생존기간(PFS) 20.6개월을 달성했다. 대조군인 아스트라제네카의 1세대 표적항암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의 PFS는 9.7개월로, 렉라자는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55% 감소시켰다.

특히 렉라자는 아시아인 환자군에서도 20.6개월의 PFS를 확인, 경쟁약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타그리소는 임상시험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효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던 이유로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조병철 연세암병원 교수는 “이번 데이터는 아시아지역 환자들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면서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렉라자의 이상반응은 가장 안전한 표적항암제로 꼽히는 게피티니브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렉라자는 3세대 1차치료제의 두 번째 표준요법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내년 초 식약처에 렉라자의 1차 치료 적응증 추가를 위한 심사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허가를 위해 안센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렉라자는 국산 신약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센은 지난 10월 컨퍼런스콜에서 2025년까지 연매출 50억 달러(7조 1300억 원)를 넘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아미타타입과 렉라자 병용 요법을 언급한 바 있다.

글·사진=유혜은 기자 euna@



뚜레쥬르, 크리스마스 한정판 굿즈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디자인 스튜디오 서커스보이밴드와 ‘원더랜드 케이크 서버’ 시즌 한정 크리스마스 굿즈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서커스보이밴드의 아트toy 피규어를 굿즈에 적용했다. 뚜레쥬르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홈케이크 구매 시 52% 할인된 4800원에 판매된다. 사진제공 CJ푸드빌

매일 페레로 로쉐 vs 롯데 가나 초콜릿 시장 2위 ‘달콤한 전쟁’

소매점 매출 1위는 롯데 빼빼로 페레로 선전에 가나와 경쟁 치열

국내 초콜릿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롯데제과 가나초콜릿과 매일유업이 수입·유통하는 페레로 로쉐가 2위 자리를 놓고 매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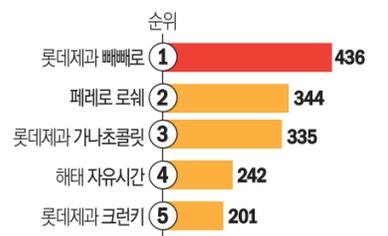
6일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초콜릿 브랜드 소매점 매출 순위에서 롯데제과 빼빼로(약 436억 원)가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페레로 로쉐(약 344억 원)가 2위에 올랐다. 작년 상반기 2위였던 롯데제과 가나초콜릿(약 335억 원)은 3위로 밀렸다.

이탈리아에서 1982년 처음 출시된 페레로 로쉐는 2007년 매일유업이 우리나라로 들여왔다. 페레로 로쉐는 차별화된 맛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제품 속 헤이즐넛과 크림, 웨하스 간 조화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밸런타 인데이 등 특별한 날에 선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란 점을 강조한 마케팅도 인기 상승에 힘을 보탤다.

소비자인지도는 증가세다. 시장조사기관 칸타키리아가 올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 86명이 페레로 로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탄 페레로 로쉐의 인기로 가나초콜릿의 롯데제과는 긴장하고 있다. 가나

올해 상반기 초콜릿 브랜드 소매점 매출 순위(단위: 억원)



초콜릿은 롯데제과가 1975년 초콜릿 생산 기반 구축 후 처음 선보인 제품이다. 이후 40년 넘는 세월 동안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입지를 굳혔다. 2018년에는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

페레로 로쉐의 선전에도 가나초콜릿이 다시 2위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은 상당하다. 페레로 로쉐는 2018~2020년 상반기에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매년 뒷심 부족으로 연간 2위 자리를 가나초콜릿에 빼앗겼다. 지난해에도 2위 자리는 가나초콜릿이 차지했다.

업계는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본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 영향으로 일부 오픈라인 매장에서 가나초콜릿 매출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달 3~5일 기준 편의점 CU의 가나초콜릿 매출은 월드컵 이전 동일 기간 대비 101.8% 증가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새벽 브라질전 효과... 편의점 에너지드링크 매출 ‘쑥’

CU 에너지 음료 매출 3.2배 ↑ 커피·비알코올 맥주 등 인기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이 잠잠했던 편의점의 ‘새벽 매출’도 깨웠다.

편의점 CU는 브라질 대전이 열리기 하루 전인 5일 20시부터 24시까지 주요 상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음료의 매출은 월드컵 시작 전인 3주 전(11월 14일) 대비 3.2배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런 새벽잠을 깨기 위해 카페인이 든 커피는 31.6%, 견과 사랑류는 33.3% 매출이 뛰었다. 주로 아침 시간대에 매출이 높은 상품들도 이례적으로 야간에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다. 업계는 새벽 경기관람을 위한 사전 준비로 풀이했다.

출출함을 채울 수 있는 아침 식사 제품도 매출이 상승했다. 이날 CU에서 제품별 매출은 김밥 26.1%, 삼각김밥 23.1%, 샌드위치 37.2%, 가공면 28.3%, 샐러드 27.8% 올랐다. 주류도 맥주 20.4%, 소주 17.2%, 와인 22.4%, 막걸리 15.5% 늘었다. 포켓CU에서 선착순 5000명에게 지급한 할인 쿠폰은 3분 만에 소진됐다.

이마트24에서도 경기 전날(5일) 피크타임(20~22시) 매출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주류와 먹거리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5일 기준, 지난달 14일 대비 판매량이 비알코올 맥주 81%, 에너지음료 56%, RTD 커피 26%, 스낵 44%, 냉장·냉동 간편식 39%, 샌드위치 27%, 삼각김밥 22% 상승했다.

세븐일레븐도 5일 저녁 시간(20~24시)

에너지 음료 매출이 2.5배 급등했다. GS 25 역시 5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4000개 한정 운영한 ‘쏟아치킨, 쏟아치킨(매운맛)’ 상품이 경기 전날 오후 6시께 완판됐다. 토트넘신발튀김의 경우 매출이 지난달 21일 대비 42.1% 늘었다.

업계는 월드컵 열기를 잇는 마케팅을 이어간다. 이마트24는 12월 한 달간 SSG랜더스라거, 슈퍼스타즈페일데이, 482에일, 솟솟라거 등 인기 수제 맥주에 대해 6캔 9900원, 한 캔 1650원짜리로 판매하며, 와인·위스키와 함께 1500여 종의 상품에 대해 1+1, 2+1 행사를 연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한 CU는 토트넘 직관투어 이벤트 ‘쏘니 챌린지’를 11일까지 실시한다. 해당 이벤트에는 지금까지 1만5000명의 참가자가 몰려 3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해지 기자 heyji@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타고 노웅래·노영민 잡는 檢... 野수사 도화선 되나

‘선거법 위반’ 이정근 기소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노웅래 소환 취업청탁 관여’ 노영민 출국금지 ‘뇌물공여’ 박씨 추가 폭로 따라 ‘親文 핵심인사’ 수사확대될 듯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민 前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서 시작된 야권 인사 비리 의혹이 노 의원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어디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박모 씨의 추가 폭로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향후 사건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했다고 보고 있다.

인물의 연루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에게 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이전 부총장에도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전 부총장에서 시작된 비리 의혹은 현재 노 전 실장에까지 불뚱이 튀었다. 노 전 실장은 이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다른

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노 전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검찰은 조만간 그를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전 부총장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박 씨 측 휴대전화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전 부총장 휴대전화 역시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그의 휴대전화에 확보된 녹취록이 상당한 탓에 지난달부터 시작된 포렌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추가로 연루된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이야기다.

박 씨의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다. 그는 금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하며 검찰 수사에 비교적 잘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뇌물을 공여한 인물인 만큼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검찰이 박 씨로부터 추가 진술이나 폭로를 끌어내기 위해 여유를 주는 것이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법조계에는 야권 인사들의 명단이 담긴 ‘이정근 리스트’가 돌기도 했다. 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들과 공기업 사장들,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이 있었고 노 의원과 노 전 실장 이름도 포함됐다. 박 씨가 평소 야권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인물들이라는 소문도 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규제 풀고, 인재양성 초점” 교육부 ‘기능중심’ 조직개편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후 10년 만에 ‘인재실’ 부활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규제 대신 정책·지원 전환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 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6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서 수는 현재처럼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규모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3실을 구성하는 한 축인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이 큰 폭으로 바뀐다.

먼저,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는 대신 인재정책실이 10년만에 부활·재편된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정책과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학술 연구 지원과 대입제도 혁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산학협력과 청년의 취·창업·장학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평생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등·고등

·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맡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조직을 재구성한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국을 둔다.

교육부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바꿔 사회적 요구와 대응, 협업에 유리하게 전환했다”며 “규제 부처에서 정책, 지원으로, 교육기관 관리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뒀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에듀테크’ 관련 조직인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된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 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 지원,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 강화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한다.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교육부조직 통합·재편

개편 및 기관	신설
기존	변경
고등교육정책실	인재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	디지털교육기획관

※출처: 행정안전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핀란드 복지, 노동효과 미미”... ‘안심소득’ 띄운 뉘

‘서울국제안심소득 포럼’ 개최 핀란드·미국 등 세계 석학 참여 한국형 소득보장체계 전환 역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래 소득보장제도 정책으로 시행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목표 달성을 위해 보완을 거듭해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뤄질 소득 보장 실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 복지시스템을 수정·보완해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오 시장과 함께 헤이키 힐라 모 헬싱키대 교수, 마이클 터브스 미국 보장

소득세 모임 대표, 박정민 서울대 복지학과 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이 참여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었던 헤이키 힐라 모 헬싱키대 교수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은 노동시장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 효과는 미미해 당시 실험만으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5만 6000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국제 사회도 소득 양극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생각에서 안심소득이 나왔다”라며 “핀란드 실험에서 노동

의욕을 고취하는 것에 큰 변화가 없었다지만, 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켜보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지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 보장 시스템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민 서울대 복지학과 교수는 “우리가 현재 살펴본 소득보장실험들은 대상 집단, 급여 내용, 연구 방법에도 차이가 크다”며 “소득보장이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에 10억 손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의 입장을 내고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기반의 온라인 언론 매체 ‘다담사’ 관계자들, 제보자 A 씨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액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관현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 장관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헬리스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B 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건 국회의원이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주거·상업·업무 다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 것”

인터뷰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2050년까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를 만들겠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6일 본지와 만나 “앞으로 청량리 일대에는 광역급행철도(GTX)와 더불어 강북횡단선, 면목선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곳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상업·업무 시설이 한데 모인 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 특화사업 등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직원들이 모인 ‘미래행복 정책 추진 TF’를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교통·상업·업무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바이오·병제·중고자동차 산업 등 특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동대문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구청장은 청량리 복합개발과 더불어

“GTX·강북횡단선·면목선 예정 ‘미래행복 정책 추진 TF’ 가동 불법 노점 단속·전통시장 정비 청량리 일대 복합개발 나설 것”

동대문구 내에 대학교가 밀집된 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의 대학이 있다. 이 구청장은 “청량리역은 광역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디젤정비장은 이전시키겠다”라며 “청량리역부터 회기역까지는 복개공사를 통해 대학들을 연결해 보행 공간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이들이 청년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동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회기동 ‘차 없는 거리’도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는 정책 중 하나다. 차 없는 거리는 회기역 1번 출구부터 2번 출구까지 약 860m 구간에 조성된다. 이 구청장은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6일 본지와 만나 “2050년까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동대문구

“회기역 파전 골목 거리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년 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청량리와 제기동 전통시장 주변 불법 노점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을 지명해 조식을 꾸렸고, 불법 노점들의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구청장은 “현재 실태 파악이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부터 주인이 방치해 둔 가게나 장사 의지가 없는 곳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점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동대문구 내 전통시장을 탈바꿈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동대문구에는 총 20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이 중 10개는 청량리와 제기동 주변에 몰려있다”라며 “시설이 노후화되고 옛날 판매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현대화 작업을 통해 젊은 세대로 찾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28년간 재직하며 얻은 깨달음을 구정 업무에 활용할 생각이다. 그는 “국정원 일의 특성이 ‘소통과 분석’이었는데 구청장 업무도 비슷하다”라며 “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통찰력을 발휘하도록 몰입하겠다”고 전했다. 박은평 기자 pepe@ 김채빈 기자 chaebi@

서울시, 올해 공공주택 등 21만호 ‘저탄소건물’ 전환

2026년까지 100만호 목표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 호를 목표로 기후변화대응에 나선다. 올해는 21만 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한다.

6일 서울시는 올해 노후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 등 21만 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 사업은 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행됐다. 2026년까지 공공 및 민간건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과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건물(80만호) △공공임대주택(12만호) △저소득·차상위가구(8만호)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3000호)다.

올해는 애초 목표였던 15만 호를 넘어서 총 21만 호가 저탄소 건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노후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이 저탄소 건물로 전환된 사례를 합친 수치다.

우선 노후 공공건물은 2만1644곳이 저탄소 건물로 바뀌었다. 특히 시 소유건

물인 남산창작센터, 중부·북부기술교육원, 탄천물재생센터 등 40곳을 제로에너지 건물 수준으로 전환하거나 에너지효율을 30% 이상 개선하고 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남산창작센터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1++을 획득하는 등 에너지 성능이 75% 이상 높아질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주택 2만1506호에 대해 노후보일러, 형광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와 엘디(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약 12만 호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채빈 기자 chaebi@

강남구, 2023 대입 설명회

서울 강남구가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입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수능성적이 발표되는 9일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현대고등학교강당에서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이해와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설명회에는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각 대학별 입학사정관이 2023학년도 대학별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다.

15일부터 30일까지는 입시 전문 컨설턴트가 지역 내 고3 수험생 60명을 대상으로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킵’에서



6월 서울 강남구 현대고등학교에서 열린 대입진로진학설명회. 사진제공 강남구

‘1대1 맞춤형 집중상담’을 실시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 현직 진로진학 상담교사 30명이 지역 내 고3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수능 성적표를 분석해 합격 가능 대학 및 학과 예측, 희망 대학 지원전략 등을 상담한다.

정시 설명회 참여 및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관내 고등학교 학교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Have a Good Neighbors

당신 곁엔 좋은 이웃이 있나요?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세상 모든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말

Have a Good Neighbors



Have a Good Neighbors
캠페인 자세히 보기 ▶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은행이 응원합니다



Shinhan

이제는 연금 투자시대! 당신의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라!



당신의 잠들었던 퇴직연금이
신한은행의 사전지정운용제도와 만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신한은행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바로가기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투자성 상품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심사필 제22-02176호(2022.07.05~2023.07.04), 준법감사인 사선심사필 제2022-14859-1호(2022.10.25~2023.10.25)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진료비 경감 우선, 장기적으로 ‘동물 의보’ 도입 필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조특법·부가세법 개정안, 소득공제해주고 진료비 인하 유도 진료항목 표준화 선행돼야... 법안 논의는 내년 상반기 전망

“반려동물이 이제는 동반자가 됐지만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내년에 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국회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금액의 30%만큼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수의사의 행정적 비용과 세금 부담을 줄여

공극적으로 진료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로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병원비 지출액은 월평균 반려견이 4만2500원, 반려묘는 4만1500원 등이다. 1년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원에 육박한다. 비싼 의료비 탓에 반려동물을 기르다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배 의원은 “진료비를 낮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연구를 했다”며 “정부가 소득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반려인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 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1일 조세소위원회에도 상정이 됐지만, 이번에는 예산안 부수법안만 다루기로 해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인 배 의원은 “세금

을 낮출 수 있는 소위원회 때문에 키를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몸통이 되는 치료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표준화돼야 파생되는 소득공제가 정해질 것이고 총액이 정해져야지 부가가치세도 나오는 것”이라며 “내년에 정리가 되는 대로 통과시키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궁극적으로 동물 의료보험 도입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부가가치세나 소득공제 말고도 동물 의료보험을 생각했다”면서도 “해외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동물 의료보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좀 미뤄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사진 뉴시스

우리금융그룹,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00억 기탁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사진 왼쪽)은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홍식·오른쪽) 주관 ‘희망2023 나눔캠페인’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웃사랑 성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우리금융이 기탁한 성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미래세대 육성, 재난·재해 복구, 소상공인 지원, 환경보존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기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 그룹사가 동참해 지난해보다 30억 원 많은 총 100억 원을 기부했다.

특히 우리금융은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 파트너로 동행하며 누적 성금 340억 원에 도달해 고객 법인기부자에게 수여하는 ‘300억 클럽’ 인증패도 받았다.

이재영 기자 lijy0403@·사진제공 우리금융그룹

“소비자 맞춤 생산능력 中企 많이 키워내야”

이노비즈협회 설립 20돌... 임병훈 회장 “납품 넘어 시장창출”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6일 협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소비자 맞춤 생산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 이노비즈데이’에서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많은 반면, 시장과 고객을 직접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강소 제조

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노비즈는 우수한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0년대 초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당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해 2001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노비즈 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다.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회장이 6일 협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노비즈데이 행사에서 ‘앞으로의 20년, 가치혁신 주역으로 거듭날 협회’를 주제로 협회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이노비즈협회

임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노비즈는 경제 위기와 함께 태동했다”며 “그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벤처 창업정책을 추진, 열악한 환경에서 수많은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경영 능력과 혁신기술이 뛰어난

기업에 이노비즈 인증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선정된 2만여 이노비즈 기업들이 오늘날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성장했다고 임 회장은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보성산업, 이강성 대표이사 선임

보성산업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강성 전 엠디엠자산운용 대표이사



를 선임했다. 6일 건설설계에 따르면 보성산업은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이사에 이강성 전 엠디엠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사장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자산신탁,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부동산신탁 등 금융 및 투자운용사에 근무해 다양한 사업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가다.

종합부동산그룹 MDM이 설립한 자산운용사인 엠디엠자산운용에서 6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자산운용 분야 전문가로 보성산업의 개발 및 스마트시티 사업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이미경 CJ 부회장·박지현 前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英 BBC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이미경(왼쪽 사진) CJ그룹 부회장과 박지현(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영국 BBC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됐다.

6일(현지시간) BBC가 공개한 올해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한 100인의 여성’ 리스트에 이들 두 명의 한국인

이름이 올랐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비대위원장은 각각 문화&스포츠와 ‘정치’ 부문에 들었다.

이 부회장에 대해 BBC는 “그녀는 열정적인 예술 후원자”라며 “이 부회장이 한국 문화의 확산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BBC는 “이 부회장은 케이팝의 세계적



성공의 원동력인 KCON을 설계했고,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외국 영화 ‘기생충’을 총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BBC는 박 전 비대위원장을 ‘정치 개혁가’로 소개했다. BBC는 “박 전 비대

위원장은 대학생 시절 온라인 성범죄 집단인 n번방 단속을 도왔다”며 “올해 그는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BBC는 올해엔 특히 분쟁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을 조명했다고 전했다. 이란의 변화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모습에 주목한 것이다. 또 여성 권리를 위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BBC는 평가했다.

정영인 기자 oin@

인사

삼성그룹

◆삼성전자 [DX부문] ◇부사장 승진 △권오상 △김대주 △김대현 △김세윤 △김이수 △김장경 △김정현 △문성훈 △박건태 △박정호 △박종범 △박지선 △박훈중 △신승원 △양세영 △위훈 △윤인수 △이경우 △이동근 △이상원 △이상현 △이영호 △이종민 △이현 △임근휘 △장상익 △전상욱 △정상태 △정재연 △정진민 △정훈 △조성대 △최승훈 ◇상무 승진 △김혁 △김경태 △김광훈 △김대현 △김선길 △김세진 △김세훈 △김영집 △김은용 △김인범 △김재환 △김지용 △김철주 △박병수 △박재식 △박찬형 △박현준 △반수형 △배범희 △서창우 △순영아 △순준호 △순현석 △송원철 △신문선 △신현 △안재용 △안주원 △안희영 △염종범 △오영기 △오용찬 △왕지연 △윤성환 △이두희 △이병한 △이상엽 △이상호 △이우용 △장욱 △장윤희 △장정렬 △장흥민 △전상욱 △정승일 △정영환 △조강욱 △조성제 △조성희 △조영석 △조철용 △조

호근 △진영두 △최정화 △최혁승 △추민기 △한글라 △한상욱 △허욱 △허준 △황영삼 △황일권 △Daniel Araujo(다니엘 아라우조) △Germain Clause(제메인 클라우제) ◇마스터 선임 △고영덕 △김선민 △김지철 △James Geraci(제임스 제라시) [DS부문] ◇부사장 승진 △김보현 △김용주 △김재열 △김태훈 △박성욱 △박수남 △박형원 △서행룡 △송기환 △송병무 △송승엽 △송호건 △신종신 △오문욱 △오정석 △오태영 △오화석 △원순재 △이금주 △이석원 △이정원 △임용식 △정용준 △홍성민 △홍승완 △홍영기 ◇상무 승진 △강명진 △강보경 △김기수 △김기연 △김도기 △김보창 △김영일 △김주연 △김준성 △김진호 △김현기 △민현진 △박성철 △송보영 △송정우 △신상용 △신원화 △안용석 △안치용 △양준훈 △오정환 △유성종 △은성민 △이병일 △이성훈 △이승준 △이승훈 △이영하 △이원용 △이의형 △이현정 △전범준 △전지환 △정연일 △정환기 △제희원 △조영진 △조현덕 △최인수 △최장석 △최철환 △하

한재 △현정혁 △펠로우 선임 △양유신 △유리 ◇마스터 선임 △곽명보 △김경선 △김용관 △김지수 △박광민 △박동진 △박세준 △서영훈 △이지호 △윤석호 △이경우 △정찬형 △채관엽 △최진 △허진성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승진 △김대용 △김성봉 △김성한 △박준영 △손동일 △유경진 △이재형 △조성호 ◇상무 승진 △강석주 △김공민 △김형렬 △김형민 △서덕중 △손재식 △안기완 △양재호 △이규원 △이상민 △이승규 △이정수 △임자현 △정용욱 △조원구 △채경찬 ◇마스터 선임 △김승호 △김영국 △황재훈 ◆삼성전기 ◇부사장 승진 △임승용 △정해석 △한규환 ◇상무 승진 △강민숙 △

곽형찬 △김위현 △민병승 △박중덕 △심규현 △우성필 △이장원 △최종민 ◇마스터 선임 △김홍석 ◆삼성SDI ◇부사장 승진 △고주영 △김기현 △이승원 △장이현 ◇상무 승진 △김도완 △김종호 △김호 △서민우 △송유진 △신승원 △이기재 △이명호 △임종훈 △장인영 △정성현 △정우창 △피경훈 ◇마스터 승진 △안기장 ◆삼성SDS ◇부사장 승진 △강성수 △김은영 △김장현 △임재환 ◇상무 승진 △박민우 △박성록 △박인석 △박창현 △변인섭 △서성배 △이형섭 △정우용 △최봉기 ◆삼성벤처투자 ◇상무 승진 △한경태

보제도과장 유상철 ◆한미글로벌 ◇사장 최희성 ◇전무 △권태창 △김상우 △염창원 △이정복 △정순오 △정유태 △정찬호 △차홍석 △최인욱 △최호경 △한옥주

◆교육부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박현득 △고등교육정책실 신소영 △차관실 임종일 ◇기술서기관 승진 △교육안전정보국 장창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간정

중국 지금



최 의 현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내년 2분기까지는 11월 11일에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조금 유연해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민의 불만을 달랠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일선 관리들은 얼마 전까지 이전의 엄격한 지침을 고수해왔다. 최근 시위가 격화되자 개정 지침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낮에는 유연한 방역, 밤에는 주동자 색출이다. 임시변통이 당장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유통기한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북서부 변방의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저항운동은 중원에 위치한 정저우의 노동자, 경제수도 상하이의 중산층 그리고 드디어 베이징의 명문대 학생까지 가세하였다. 여기에 월드컵 중계화면에 등장한 진짜 세상의 풍경은 중국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시대에서는 대학생이 앞장서고, 화이트칼라가 가세하면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했다. 중국에서도 독재정권이 긴장하고, 타협을 제시하며 심지어 민중이 승리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중국인이 거리에서 또는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와 인권을 외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중국인은 여전히 정부와 당을 믿고 기다린다.
시진핑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마오쩌둥 체제를 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건국의 아버지 마오는 대약진과 문화혁명이라는 두 번의 과오를 저질렀다. 대약진기간에서는 수천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 전 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혁명동지들이 한마음으로 만류한 끝에 겨우 마오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혁명에서

그의 동지들은 죽임을 당했고, 혁명의 광기는 마오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끝났다. 지금 시진핑의 결연 동지가 아니라 맹종하는 부하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시위대를 대륙의 실정을 모르는 철부지로 여긴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진핑의 업적 세우기와 관련된 정치방역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취약한 의료시스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의학저널(Nature Medicine 2022년 5월호)을 인용하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풀면 사망자 수가 15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중국 정부가 시위하는 젊은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155만 명의 노약자를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정책적 결단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기에 대다수 중국 인민들은 제로 코로나의 고통을 제하하면서도 여전히 인내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민의 참음이 영원하지 않았기에 중국 정부도 반드시 다음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호주의 민간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23년 2분기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

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의미 있게 인용되었다. 2023년 2분기로 예상되는 이유는 첫째, 3월에 개최될 시진핑 37기의 첫 양회인 전인대와 정협 회의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 적어도 이때까지는 방역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로 전인대 회의에서는 그해 경제성장 목표가 제시되는데 제로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목표 설정 자체가 어렵다. 작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1%였고,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성장목표를 5.5%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얼마 전 올해 성장을 전망치를 3.3%에서 2.8%로 더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제로 코로나가 폐지된다는 가정하에 내년도 성장률을 '고작' 4.4%로 전망했다. 아무리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해도 제로 코로나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엘리트당 간부나 오바이싱(서민) 모두 잘 알고 있다.
내년 2분기까지는 11월 11일에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조금 유연해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민의 불만을 달랠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일선 관리들은 얼마 전까지 이전의 엄격한 지침을 고수해왔다. 최근 시위가 격화되자 개정 지침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방역

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낮에는 유연한 방역, 밤에는 주동자 색출이다. 임시변통이 당장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유통기한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시점은 의료 부문에서의 제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홍콩의 의학저널(Lancet Infectious Diseases, 2022년 7월호)은 중국산 기존 백신을 3회 접종하면 그 효과가 mRNA 백신을 세 차례 맞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mRNA 백신 없이 자국산 백신의 힘으로 변이바이러스와 싸우려 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으로 아주 매력적이다. 80세 이상 노령층의 추가 접종률은 현재 40%, 60세 이상은 69%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이 비율을 95%로 올리려 한다. 그러나 중국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주사 맞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게 모종의 방역 완화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중국 언론에 보도되는 접종률 추이와 치료시설 확충 정보가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줄 것이다.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중국의 민간소비, 특히 서비스와 수입품 수요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CEO 칼럼



최 민 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평균으로 회귀하고 있는 한·미 부동산시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올여름부터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 경제학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주기적인 경제순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도시 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현 상황을 "평균으로의 회귀", "정상화", "정상으로의 복귀"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 복귀는 분기(分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기 있던 주택과 산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레저 호텔과 물리적 소매부동산은 수요가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는 부동산 부문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과열된 이익이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의미다. 정말로 좋았던 시기는 적어도 잠시 끝났다.
미국 주택 시장은 올여름 이전까지 지난

2년 동안 평균적 수준을 넘는 과열이었다. 실제로 신규 및 기존 주택 판매는 2010년 여름을 저점으로 미국 연준이 2022년 봄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까지 12년 동안 이례적으로 고공 성장했다. 신규 주택가격은 올 4월에 정점을 찍었고, 기존 주택가격은 6월에 정점을 찍었다.
그렇다고 미국 주택경기가 침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은 여전히 역사적 최고 수준에 가깝고, 판매도 여전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ULI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실률은 올여름까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임대료도 매일 새로운 기록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공동주택 임대료가 향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역사적 임대료 상승의 평균 수치는 3~4%다. 이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주택 시장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희생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출이자

율 같은 주택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구매와 임차 능력이 있는 가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값이 너무 올라, 많은 사람에게 적절한 가격의 주택 구매가 힘들어진 이유도 있다.
물류 같은 산업용 부동산도 이제는 하강하고 있다. 물류는 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와 임대료 상승이 역사적 기록을 뛰어넘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모두 코로나 기간 중 물리적 소매업으로부터 뺏겨온 시장 점유율 중 일부를 되돌려주고 있다. 아마존도 다수의 완료된 물류창고의 사용을 연기하거나 전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호한 입지의 고품질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확실하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우량 부동산을 여전히 선호한다. 전체적으로 물류 부동산 인기는 예전보다 덜하다. 하지만 ULI 인기 부동산 장르에서 물류는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용 시장은 견고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이다.

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 수익도 재설정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택과 물류 부동산 수익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그 배경에는 강한 부동산 펀드멘털, 투자자 집중, 초저금리, 미국 연방정부의 3차례 경기부양 지출 등이 있었다. 올 중반까지 지난 4분기 동안 미국부동산투자자신탁위원회(NCREIF)의 부동산지수(NPI)를 보면, 기관투자 부동산의 총수익률이 20% 이상으로 치솟았다. 20년 평균의 거의 3배다. 그러나 ULI는 내년도 총수익률이 3.8%까지 하락하다가 내년 7%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정상적인 수익률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지난 10년 동안은 저금리 시대였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 연준이 역사적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 취득과 개발 비용이 증가하여 레버리지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당분간의 감축은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면 바닥을 치고 다시 역사적 평균 성장률에도 다시 재진입하게 된다.

☆ 노임 촌스키 명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진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본능이 있다면 아직 변화의 기회는 있고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다."
언어학자인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이다. 그의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개개의 언어수행에 앞서 존재하며 그것을 생성시키는 인간의 보편적인 언어능력과 언어규칙을 탐구한 것으로 '언어학 혁명'이라 불리며 인지과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은 그의 생일. 1928~
☆ 고사성어 / 촌초춘휘(寸草春暉)
'풀 한 포기과 봄날의 햇볕'이라는 뜻.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기 어려움을 비유한다. 당(唐)나라 맹교(孟郊)의 '유자음(游子吟)'이 원전. 먼 길 떠나는 아들에게 정성스레 옷을 짓는 어머니의 사랑을 묘사한 시에서 유래했다. "자애로우신 어머니 손에 실 들고, 길 떠나는 아들을 위해 옷을 지으시네. 떠나기에 앞서 촌촌하게 바느질하는 뜻은, 돌아올 날 늦어질까 염려하시기 때문이라네. 뉘라서 말하리오. 풀 한 포기의 마음이, 석 달 봄볕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慈母手中線 游子身上衣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誰言寸草心 報得三春暉]". 풀 한 포기는 자식, 석 달 봄볕은 아버지의 은혜를 비유한다.

기자수첩



문 수 빈 / 자본시장부

자본시장이 커지면, 다시 말해 보다 많은 투자자가 보다 많은 자금을 톡톡 내놓게 하려면, 이들의 머릿속에 '게임의 룰은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 룰이 특정 그룹에만 유리해 본인이 질 게 뻔하다면 누가 그 게임을 하려고 하겠는가. 본격적인 판은 각각의 플레이어가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열린다.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플레

더 세계 울어
이어일수록 판 돈을 크게 거는 법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판을 벌이려면 모든 플레이어에게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 방식은 '공정한 룰'이 될 수 있다.
'공정한 룰'은 거저 얻을 수 없다.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징검다리 건너기와 유사하다. 일일이 받을 디데야 징검다리의 우리가 강화 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알 수 있듯이 규칙을 하나하나 시장에 적용해 봐야 그게 공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듯 때 문이다. 정책을 세우는 당국으로서는 시장

내 변수가 너무 많아 이 규칙이 강화 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 5년 동안은 강화 유리일지 몰라도 6년째에는 투자자를 죽이는 일반 유리가 될 수도 있는 게 규칙이고 제도다.
대표적인 예가 물적분할이다. 물적분할은 본래 기업의 부실한 사업부를 떼어내 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 초 몇몇 기업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물적분할을 활용했다. 부실한 사업부가 아닌 잘나가는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시켜 기업 체질 개선은커녕 악화시켰다. 강

화 유리였던 제도가 일반 유리가 된 것이다. 이에 일반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칼바람에 맞서며 국회, 금융위원회 앞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정부는 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강화 유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투자자의 눈물 없이 자본시장은 성장하지 못한다. 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나무이듯, 자본시장 역시 투자자의 고통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 희생은 아쩔 수 없다. 다만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또 즉각적으로 낼수록 제도 설계자들이 일반 유리를 강화 유리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bean@

☆ 시사/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의 개념을 상품 추가, 기능 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권 및 핀테크 업권 등이 오픈뱅킹뿐 아니라 맞춤형 상품추천, 자산관리, 상품가입·변경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개방한 금융 생태계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덕현 | 편집국장 박성호
주소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고운 우리말 / 지다위
남에게 의지하고 떠를 쓰거나 제 허물을 남에게 덮어씌운다는 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계륵 된 국고2년·통안3년물 버릴 때 됐다

계륵(雞肋). 닭의 갈비뼈라는 뜻으로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으로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 유비와 위나라 조조가 한중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조조가 저녁 식사로 닭국을 먹으면서 진퇴를 놓고 고민에 휩싸이며 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발행하는 국고채 2년물과 통화안정증권(통안채) 3년물이 꼭 그 꼴이 된 듯싶다. 최근 기재부가 국고채 2년물 유통성 제고를 위해 통합발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내자 다수의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기재에게 “두 기관이 자존심 싸움 그만하고 차라리 국고채 2년물과 통안채 3년물 발행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통합발행이란 일정 기간 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 종목으로 취급하는 제도다. 만기는 같지만 각각 발행날짜가 달라 별도 종목으로 취급될 경우 종목은 쪼개지고 물량은 적어 유통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다. 국고채 2년물을 예로 들면 1조원을 전후로 매월 한 차례씩 입찰을 통한 발행이 이뤄지는데, 최대 3개월(선매출 포함 시 4개월)이라는

데스크칼럼

김남현

정치경제부 경제전문기자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기자는 2020년 10월 26일자 ‘국고채 2년물 발행이 단견일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데스크칼럼을 통해 국고채 2년물 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근거를 곱씹어보면, 안정적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국고채 만기물장기화를 추진해왔던 그동안의 기재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단기외채 비중이 늘 수 있다는 점, 기업대출은 원활히 하고 가계대출은 옥쇄야 한다는 당시 직면한 경제문제를 푸는데 역행할 수 있다는 점, 한은의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 통안채 발행과 겹치면서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열거했었다.

국고채 2년물이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우선, 국고채 잔존만기 구조를 보면 국고채 2년물이 등장하기 전인 2020년 말 17.8%에 그쳤던 1년 초과 3년 비중은 2021년 말 18.8%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3년 초과 비중은 76.0%에서 74.5%로 줄었다.

2021년 4분기(10-12월) 26.0%까지 떨어졌던 총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1년 기준) 비중도 올 3분기 26.8%까지 늘었다. 이는 외국인이 단기채권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 1년 미만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주이를 보면 국고채 2년물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직전인 올 2월 25.8%에서 올 10월 27.0%까지 증가했다.

국고채 2년물 발행으로 주요 공개시장 운영 수단인 통안채 2년물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한 한은도 작년 5월을 끝으로 통안채 28일물 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그해 9월부터 매일 1조원 전후의 통안채 3년물 발행을 시작했다. 기재부는 국고채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로, 한은은 통안채를 28일물, 91일물, 1년물, 2년물로 각각 발행하면서 양 기관간 만기가 겹치지 않았던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결국, 같은 신용등급의 국고채와 통안

채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실제, 국고채 2년물 발행 이래 통안채 2년물과의 금리는 상호 앞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중이며, 올 6월 15일엔 최대 0.167%포인트 차(국고채 2년물 3.572%, 통안채 2년물 3.405%)까지 벌어지기도 한 바 있다.

국고채가 통안채를 대체하는 구축효과도 발생 중이다. 국고채 2년물 발행을 전후로 각각 21개월인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와 작년 3월부터 올 11월까지 통안채 2년물 월평균 우상향을 비교해보면 138.2%에서 129.1%로 떨어졌다.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물량이 정해진 가운데 연별별 종목이 많아진 것도 부담이다. 기재부는 한정된 물량 안에서 많은 종목으로 쪼개 발행하는 문제가 있고, 국고채를 가장 먼저 인수하는 전문딜러(PD)들도 시장조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짜리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입장에서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써의 통안채 3년물은 만기가 너무 길다.

기재부와 한은은 타협을 통해 계륵으로 전략 중인 국고채 2년물과 통안채 3년물을 과감히 버리는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 특히, 먼저 시작한 기재부가 문제풀이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kimnh21c@

진료실 풍경

정서행동 장애

소아정소년과는 시끌벅적해야 병원답다. 놀이방에서 노느라, 뭘 해 달라 조르느라, 주사 맞기 싫다며 떼를 쓰느라, 시끄러워야 활력이 넘친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한 게 아니라 썰렁한 느낌마저 든다.

소아정소년과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진료를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주사를 냈으면 울어야 맛이 나지 하도 순해 울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싱겁기까지 하다. 진찰을 할 때 자기가 하겠다고 하며 엄마는 저리 가라는 적극적인 아이도 있고, 암전한 아이도 있고, 대부분은 좀 울고, 간혹 가다 정말 대책 없이 난리를 치는 아이도 있다.

문제는 대책 없이 난리를 치는 아이다. 이런 아이들을 진찰할 때는 다들 달려들어 꼭 잡을 수밖에 없어 아이가 병원을 더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대부분은 약도 잘 먹지 않기에 병이 악화돼, 약으로 치료할 병도 주사로 치료해야할 경우가 많아, 더욱 병원을 무섭고 아프게 하는 곳으로 여기게 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크면서 정서행동 장애가 올 가능성과, 성인이 돼서도 더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40년 가까이 진료를 하면서 얻은 결론 하나, 우는 아이 딱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끄러우니 먹기라도 하라고 입막음용으로 주는 떡과, 예쁘고 착하니 더 먹으라고 사랑으로 주는 떡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럼 진찰할 때 아이들의 태도가 다른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타고난 성격? 자라는 환경?

우리 병원 간호사의 아들들은 아주 차이가 크다. 한 명은 의사가 되겠다고 책을 들고 다니며 단어를 외우고, 한 명은 걸핏하면 등교 거부, 학교에서 말썽부리기, 동생 괴롭히기 등 부모 속을 썩인다. 다른 것은 엇비슷해 보이는데 한 명은 학교 끝나고 병원에 들러 엄마가 챙겨주는 간식을 먹고 학원에 가고, 한 명은 거친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서 맹모삼천지교가 결코 헛말이 아님을 절감한다. “원장님, 중2병 고치는 주사 없어요?” 간호사의 하소연이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마감 후

박은평

사회경제부 차장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의 낮과 밤은 확연히 달랐다.

2일 오후 9시쯤 영하권 한파에도 광화문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는 이날 지정 거리응원을 하기 위해서다. 붉은악마 머리띠와 태극기 등 응원용품뿐 아니라 담요, 목도리, 장갑 등을 챙긴 시민들은 돛자리를 깔고 앉아 대기했다. 거리 응원이 시작되자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했다.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 속에서 후반전이 끝날 무렵 역전골이 터지자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모두 일어나 환호하며 소리 질렀다. 경로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이 울리자마자 시민들은 “16강이다”를 외쳤다.

광화문광장의 두 얼굴

이날 광화문광장 인근 편의점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핫팩, 돛자리 등이 많이 팔렸다고 한다. 이번 월드컵에서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은 16강전까지 4차례 열렸지만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 주최 측인 붉은악마와 경찰, 소방, 서울시 등이 합심해 철저한 인파 관리 대책을 세운 덕분이다. 여기에 시민들도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거리를 유지했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순차적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요일인 3일 낮,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전광환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세종대로와 주변 도로 일부를 점거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다.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시청역 쪽에서는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전환행동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광화문광장이 재개장된 이후 인근에서는 주말마다 집회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확장기로 구호를 외치니 광화문광장을 찾는 게 부담스럽다고 한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 상인들도 죽을 맛이다. 집회 때문에 시민들이 찾지 않으니 주말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집회가 계속되니 시민들이 근처로 오지 않고 교통도 막혀 배달도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새벽 거리응원 화합의 장이었던 광화문광장이 낮에는 대립과 갈등의 장소가 된 것이다. 상반된 이념 집회가 열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집회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

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리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성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달라지지도 않는다. 이를 보장하되 국민 생활권도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렇기에 집회·시위가 시민의 생활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광화문광장을 즐기고 싶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주의는 인성으로 완성된다.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필요하다. 피해 보는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내 이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광화문광장이 도심 속 진정한 시민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해지길 바란다. pepe@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상을 바꾸는 K-BAB

식사량에 알맞게 요리하기 프로젝트

이~만큼 말고 요~만큼만! 요리해요

너무 많이 요리해서
버려지는 음식이 많아지면
지구가 점점 아파진대요
엄마, 우리 이제 먹을 만큼만 요리해요

대한민국 전체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지구의 건강도 지키고 1년에 약 2조 6천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실천으로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식사량에 알맞게 요리하기 프로젝트



1. 가족 수에 맞춰 계획하기
2. 소량으로 장보기
3. 계량컵 등을 사용하여 정량 지키기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15.7% 줄일 시,
연간 가계 절감 비용 2조 5백억 원을 20%로 환산
출처 : 환경부(2012)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